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늘 말씀으로 무장하며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찌라
역대하 7장 14절

2020년 미 종교단체 가입률 47%

CT, 갤럽 설문조사 결과 분석... 첫 절반 아래, 지속적 하락세

미국에서 교회 등 신앙공동체에 교인으로 등록된 성인의 비율이 처음으로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교회나 유대교 회당, 이슬람 사원 등 종교시설에 교인으로 가입했다는 응답률은 47%였다. 이는 갤럽이 미국에서 1937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이자, 처음으로 50% 아래

로 내려간 것이다. 크리스천티투데이(CT)는 이러한 감소세는 지난 20년 동안 즉 1990년대 중반의 70%, 2019년의 50%에서 감소세의 연장선이라고 분석한다(Gallup: Fewer Than Half of Americans Belong to a Church).

'넌스' 증가... "특정종교 선호도 없다" 응답자 부상

갤럽은 미국 인구의 거의 3/4(73%)가 교회나 다른 종교 공동체에 가입했다고 보고한 1937년부터 교인 수를 측정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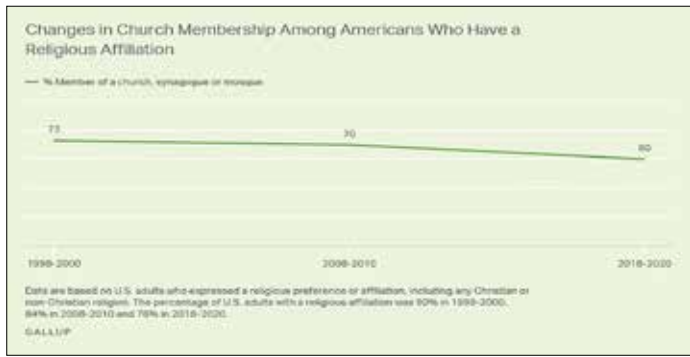
대부분의 기간 동안 교인 수는 약 70%에 머물렀지만 1999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후반에는 교인 수가 약 62%로 떨어졌고 계속해서 감소했다.

갤럽의 조사는 6,000명 이상의 미국인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살펴보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데이터를 다른 두 가지 기간(2008-2020년 및 1998-2000년)과 비교했다.

교인 수 감소는 소위 "넌스(Nones)"(종교적 소속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부상과 일치한다. 갤럽은 미국인 5명 중 1명(21%)이 종교가 전혀 없다고 보고한다. 이들은 복음주의자나 가톨릭 신자만큼 큰 그룹이다. 다른 여론 조사에서는 이 수치를 30%에 가깝게 설정했을 정도로 갑자기 부상하고 있다.

갤럽은 따라서 '넌스'는 교회나 다른 종교단체에 거의 다니지 않는다고 밝혔다.

갤럽 보고서는 "예상대로, 종교적 선호도가 없는 미국인은 교회, 회당 또는 모스크에 속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2018-2020년(설문조사)의 4%에 불과했다. 이 수치는 1998년과 2000년 사이에는 10% 정도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갤럽은 또한 인구의 약 76%를 차지하는 미국 종교인들 사이에서 교회, 회당, 모스크의 회원 감소를 발견했다. 1998년부터 2000년 사이 이들의 약 3/4(73%)가 예배당의 회원이었으나 그 숫자는 60%로 떨어졌다.

종교단체 전체에서 교인 수

가 감소했지만, 가톨릭 신자는 개신교(73-64%)보다 더 큰 감소세(76-58%)를 보였다.

갤럽 보고서에 따르면, 젊은 미국인들은 조직화된 종교와 점점 더 단절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은 예배당의 중요 회원인 노년층마저 감소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945년 이전에 태어난 미국인의 73%가 교인이었다. 이 숫자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66%로 떨어졌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회원 수는 같은 기간 동안 63%에서 58%로 떨어졌고 X세대(57%에서 50%)와 밀레니얼세대(51%에서 36%)도 마찬가지였다.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특정 회중의 생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의 차이는 신앙공동체에 도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갤럽에 따르면 교인 수 감소는 계속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교인 수와 종교적 소속을 측정하는 것은 연구자들에게 여전히 어려운 과제다.

1850년부터 1950년까지 미국 인구조사국은 미국의 종교 회중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1906년부터 1936년까지 '종교단체 인구조사'를 발표했다.

퓨리서치(Pew Research)는 '2010년 종교 및 인구 조사에 관한 보고서'에서 "종교단체 인구조사는 1946년까지 10년마다 실시됐다고 밝혔다. 1936년 종교단체 인구조사가 마지막으로 발표했다. 미 의회가 1946년 인구조사에서 수집된 정보를 표로 작성하거나 게시하는 데 자금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56년까지 의회는 이 종교 인구조사에 대한 자금을 완전히 중단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면예배도 변화

처치리더스킵, 캐리니우호프목사가 제시하는 목회자의 5가지 치명적 실수 소개

마침내 코로나 이후의 세계가 오늘의 현실이 됐다. 코로나는 국가와 지역마다 다른 시기에 발생했지만, 2021년은 포스트코로나의 세계로 진입하는 해로 보인다.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 때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

대면 예배나 온라인 예배가 현재로서 정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질문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임에 틀림없다. 각각은 고유한 과제와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 이전에도 수십 년 동안 교회의 출석률은 감소하고 있었고, 온라인 교회 역시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전직 변호사이자 캐나다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교회 중 하나인 코넥서스교회의 설립 목사인 캐리 니우호프(Carey Nieuwhof)는 교회 지도자로서 지금 가장 범하기 쉬운 5가지 치명적인 실수가 있다고 말했다(5 Critical Mistakes Church Leaders Should Avoid in the Post-COVID World).

1. 온라인 사역 발달에서 발을 떼는 일

이웃에게 접근하고 참여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또한 교회에 속하지 않은 성인의 21%가 온라인 예배를 시청할 의지가 있다고 응답했고, 높은 디지털 사용률을 가진 (비교인)성인의 경우, 그 비율은 87%로 높아졌다.

일단 코로나 이후가 되면 디지털 사역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려는 유혹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자유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것은 실수가 될 수 있다.

대면 예배를 하는 교회가 현존하는 한, 디지털 사역에서 물러나는 것은 미래와 전도에 대한 물러섬과 다름없다.

(3면으로 계속)



시론
은희곤 목사



3면
푸른초장
라홍재 목사



9면
본사방문
허영란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교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 201)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j2book-usa.com | c/o: 219-1@j2book.com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벅스카운티 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공고

벅스카운티 장로교회는 필라델피아 교외에 위치한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KAPC) 소속 교회로서 1974년 창립한 이후 47년 동안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화목하고 섬기는 교회로서 아름답게 성장하여 온 교회입니다. 현재 담임목사님이신 김홍운 목사님께서 정년 은퇴하심에 따라 후임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지적

-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 본교단(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에서 인준하는 정규 신학대학원(Master of Divinity 또는 동등학위)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
- 미국에서 5년 이상 담임 목사나 부목사로 사역하신 분
- 2 중언어(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하신 분
- 미국 내 목회 활동에 법적 문제가 없는 분 (미국 시민권 혹은 영주권 소지자)

제출서류

- 한글과 영문 이력서 (사진 첨부)
- 자기소개서 (신앙 고백과 가족 소개 포함)
- 목회 비전 및 목회 계획서
- 대학교/신학대학원 졸업 증명서 각 1부
- 목사 안수 증명서/소속 증명서(노회발행) 각 1부
- 목회자가 직접 보내는 연락처가 포함된 봉인된 추천서 3통
- 최근 1년 이내의 설교 동영상 2편 (web link)

Bucks County Presbyterian Church
후임목사 청빙위원회

1550 Woodbourne Road Levittown, PA 19057
www.buckscountychurch.org

제출된 서류는 청빙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심사후 안전하게 폐기되고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위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차 서류심사 후 개별적으로 통보드립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면예배도 변화

(1면에서 계속)

만약 당신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온라인 사역에서 받을 때는 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다. 모두가 수년간 하이브리드 방식(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혼합)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교회(교회가 훌륭한 대면 예배와 디지털 경험을 동시에 제공하는 교회)는 미래가 될 것이다.

2. 교회의 직원 및 자원봉사자를 대부분 물리적 공간에 배치하는 일

대부분의 교회가 인력과 자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사실이지만 코로나 이전처럼 기술이나 창조적인 사람의 직업 설명란에 '온라인 사역'을 한 줄로 할당하는 것은 과거의 일이 돼버렸다. 아니, 적어도 미래를 원한다면 그것은 과거일 뿐이다. 온라인 사역으로 인해 사역의 규모들이 분산되고 소규모로 진행·성장함에 따라 교회 건물 밖에서 일어나는 사역에 직원, 예산, 자원봉사자에 상당비율을 할애

코로나 이후 세계가 다시 열리게 되면 예배가 어떻게 진행될지 여전히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두 가지 종류의 예배를 운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대면 그리고 온라인에 전념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온라인 사역은 주일에 강단이나 예배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단순한 '송출(livestream)'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시간과 자원 측면에서 도전을 주지만 몇 가지 이유로 타당성이 있다.

첫째, 거의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온라인 서비스가 더 좋을 때 더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둘째로, 온라인에서 예배 음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셋째로, 회중 설교할 때는 좋지만 장치로 보고 있을 때는 덜 하고 개인적인 것처럼 느껴진다. 직접 카메라 렌즈에 시선을 두고 하는 설교(다른 카메라 위치까지 포함)는 온라인에서의 예배 경

은 온라인과는 차별을 둘 수 있는 음식, 커피, 주차장, 그리고 소모임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아이들에게 온라인으로 얻을 수 있는 자료 외에 다른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의 원칙은 명확하다. 만약 여러분이 미래에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고 느낀다면, 아마도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모이는 사람들의 증가가 아니라 '다운로드' 수의 증가일 것이다.

4.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자신의 모든 견해를 온라인에 남기는 일

잠시 주제를 바꿔서 '어떻게' 보다 '무엇'에 대해 더 다뤄보려고 한다. 이것은 자체로 하나의 글이 돼야 하지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이들이 교회에 가지 않는 이유는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바로 당신의 소셜 미디어 게시물 때문이다.

최근 바나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비기독교인의 30%가 소셜 미디어에 올라오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게시물에 긍정적으로 반응한다고 나타났다. 그러나 45%는 부

5.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분노하는 일

지도자로서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직면했던 한 가지 진실은 이렇다. 사람들은 거의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코로나 이후 시대에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사람들은 당신이 원하는 패턴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교회의 사명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 것 같은, 드물게 출석하는 교인들과 우리는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하다. 어쨌든 그들을 끌어안는 것이다. 나는 일부터 '끌어안다, 받아들이다'(embrace)라는 단어를 골랐다. 왜냐하면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거부한다고 느낀다면 그들이 거부하고 싶어 하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성장하고 좀 더 안정되기를 바란다. 그들을 판단하기 보다는, '왜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는지'에 대해 묻길 바란다. 정죄하는 것은 끔찍한 복음주의 전락이다. 당신은 당신을 원망하고 판단하



시론

마중물(CALLING WATER)



은희곤 목사

(기독교 평화포럼 대표)

-한 초등학교에 문제를 안고 있는 8살 여자 아이가 있었습니다. 잠시도 가만있지 못하는 이 아이는 1학년 초부터 선생님의 골머리를 아프게 했습니다. 떠드는 건 예사고 숙제를 해오지 않을 뿐더러 성적은 늘 꼴찌였습니다. 이 아이는 소위 A.D.H.D(산만증후군)가 심한 아이였습니다. 담임선생님은 몇 번이고 야단을 치고 알아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급기야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아이를 더 이상 가르칠 수 없으니 특수학교에 보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편지를 받은 부모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딸을 심리 상담사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 상담사는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며 그 아이를 관찰하였습니다. 한참 후 상담사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엄마하고 이야기 할 것이 있으니 이 방에서 조금만 더 기다려 줄래?" 상담사는 라디오를 켜 놓은 채 어머니와 함께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작은 여자아이가 혼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머니에게 조그마한 창으로 아이를 보게 했습니다. 잠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오자 그 아이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음악에 맞춰 방안을 돌아다니며 너무나도 재미있고 우아하게 춤을 추는 것이었습니다. "부인, 이 아이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춤에 너무나도 재능이 있는 아이입니다. 가만히 앉아있게 한 것이 도리어 고통인 것이지요." 이 아이는 춤추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 매일 신나게 춤을 추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레리나이자 안무가인 "질리언 린(Gilian Lynne)"입니다. 그녀에 의해서 "캣츠", "오페라의 유령" 등과 같은 멋진 뮤지컬 작품들이 만들어졌습니다(떠온 글).

에디슨도 엉뚱한 질문을 끊임없이 해 다른 아이들 수업을 방해한다고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산만증후군이었고 빌게이츠도 휴학을 하며 심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워런 버핏도 소심한 성격과 여자 앞에만 서면 부자연스러워져 언어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들 모두 단점만 보면 문제야로 전락될 뻔한 사람들이지만 그 가운데서 장점을 보고 그 장점을 잘 부각시켜 인생을 대성공으로 이끈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안에 있는 잠재력을 발견한 질리언 린을 상담했던 치료사와 같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이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잠재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숨겨두신 가능성입니다. 필자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와 1983년에 첫 담임목회를 섬겼습니다. 지금은 김포가 신시가지로 많이 발전하였지만 당시만 해도 하루에 2번 버스가 다니고 비가 오면 장화를 신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런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첫 목양지였는데 여기서 있었던 일을 기억합니다. 예배당 본당이 있고 작지만 교육관 건물이 있었는데 누군가 교육관 벽에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저와 제 처가 지우면 또 그려져 있고 지우면 또 그려져 있고를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어린이부 예배를 드리는데 조용히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던 아이들이 간혹 기도 시간에 여기저기서 까르르 까르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의 대부분 참다 참다 못해 푸하하 웃음보가 터진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아이에게 기도를 시키고 웃음소리가 날 때 눈을 뜨고 보았습니다. 1학년 남자아이 하나가 색연필을 가지고 아이들 발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하는데 이때 양말을 안 신고 온 아이들의 발바닥이 대상이었습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교육관 벽에 그림을 그리던 애가 바로 너였구나, 껌씹한지 고!" 예배를 마치고 단단히 야단을 치려고 이 아이를 불렀습니다. 이 아이가 잔뜩 긴장하고 떨며 저에게 오자, 제가 야단을 치기도 전에 제 처가 이 아이를 먼저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말합니다. "애야 너 참 대단하구나. 어쩔 그렇게 그림을 잘 그리니."

(6면으로 계속)

교회건물 밖 사역에 직원, 예산, 자원봉사자 상당비율 할애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유의·부정기적 출석교인에 대한 태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온라인 및 소그룹 모임에 얼마나 많은 자원을 할당해야 할까? 어느 교회 지도자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는 코로나 이후 40%의 교회의 팀과 시간과 예산이 온라인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이것이 건강한 비율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대부분의 교회들을 완전히 확장시키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온라인과 교회건물 밖의 사역에 쏟는 자원을 늘리는 것은 점차적으로 가능해질 것이다. 직원이 없거나 부족한가? 여러분의 온라인 활동을 도와 줄 15-25세의 자원봉사자들을 찾으라. 그들은 스스로가 미래이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다.

3. 코로나 이전과 같이 동일하게 대면 예배를 재개하는 일

힘을 훨씬 더 좋게 만들 수 있다.

물론 이것이 더 많은 일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안다. 만약 당신이 그것에 대한 자원이 없다면, 적어도 카메라에 직접 보고 할 수 있는 다른 무언가를 온라인에서 하는 것을 고려해보기를 바란다. 예를 들어, 주일 아침 직접 만나는 모임이 아닌 다른 것-5분 말씀 묵상, 대화, 또는 다른 무언가를 고려할 수 있겠다.

제작과 리더들을 위한 훌륭한 온라인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교육 세션과 적용 가이드가 있다. 당신과 당신의 팀 교육을 위한 무료 맛보기 강의를 이 링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직접 만나는 모임의 경우, 경험을 좀 더 개인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 좋다. 사람들로 하여금 매력을 느끼게 하고, 다시 대면예배를 시작한 교회들

정적으로 반응했고, 25%는 모른다고 답변했다.

모든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온라인에 게시해야 한다고 느끼는 교회 지도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 염려된다. 백신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나 논쟁에서부터 정치, 입법, 기후변화, 이웃이나 연예인에 대한 불만... 그들이 지금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든 간에, 매일 보는 소셜미디어는 나를 지치게 만든다.

당신은 세상이 보고 듣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은가? 아무리 개인 계정으로도 글을 올린다고 해도, 당신과 친구인 비기독교인이 그 게시물을 보고 있고, 그것은 그들에게 인상을 남기게 된다. 좋은 영향력을 쌓는 데는 몇 년이 걸리지만 잃는 데는 몇 초가 걸린다. 교회여, 우린 지금 많은 영향력을 잃고 있다.

는 사람들로부터 도망친다. 당신은 왜 당신이 이끄는 사람들로부터 다른 것을 기대하는가?

궁극적으로, 사람들은 가치 있는 곳에 끌린다. 그러므로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팀 훈련과 개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만 늘 직원 회의의 위해 모든 것을 완벽히 준비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알다시피 직원이나 리더 교육시간을 잠을 때마다 당신은 책을 읽거나, 팟캐스트를 듣거나, 심지어 세미나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보는 잠재적인 실수들은 바로 위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알림: 본지 4월 3일자는 정기휴간에 따라 발행되지 않았습니니다. 독자여러분의 해량 바랍니다.]

신학, 목회학 -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국제항공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리더십대학원, 국방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신학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SEVIS-20 혹은 J-1 Visa
- 직장과 사역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 소집특강 및 Online 으로 학점취득 가능
-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 타 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Midwest University 와 함께 동역할 인재를 찾습니다
(부설- MIRI 연구소, 글로벌 리더십 연구원)

- 교수 1. 경영, 마케팅, 리더십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자
2. 신학, 선교, 목회,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3. 국방, 항공, 상담 분야와 관련한 박사학위 소지자
* Full time or Part time - Online Teaching, 전공분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 할수 있는 분
- 사역 개발 분야- 산학협력, 인력개발, IT, 마케팅, 항공, 어카운팅과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자
- 자격 1. 미국에서 High School 과 College 졸업 예정자 혹은 졸업자
2.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3. 영주권 스폰 가능
4. 관련분야 경력자 선호
- 제출서류 : 이력서, 대학이상 성적 증명서, 자기 소개서
- 제 출 처 : jp@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5103 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Campus Tel : (571)730 - 4750 / Fax : (571)730 - 4751
E-mail : wdc@midwest.edu

목사의 목상



이종식 목사

(뉴욕 베이스사이드장로교회)

우리가 죽은 후에도 남게 될 귀한 것

얼마 전 날씨가 참 좋았다. 봄날을 완연히 느낄 수 있는 따뜻하고 햇볕이 쨍쨍한 날이었다. 그날 나는 갑자기 프렌치 프라이스가 생각나서 혼자

맥도날드엘 가게 되었다. 프렌치 프라이스를 좋아하나 집사람도 말리고 여러 사람이 말려서 먹지 못했는데 그날은 나 혼자여서 자유롭게 즐기며 먹

을 수 있었다.

그런데 따스한 햇볕을 받으며 차 안에서 뜨겁고 바삭한 프렌치 프라이스를 먹는데 얼마 전 돌아가신 장로님을 생각하며 내가 아직 건강하게 살아 있어 먹고 싶은 것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그리고 행복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러다가 이런 것도 오래지 않아 즐기지 못할 때가 올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런 때가 오면 무엇이 남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오늘같이 좋은 입맛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것을 두고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인데 나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교회에서 누군가를 보면 언제나 생각나는 분

들이 있는데 얼마 전 돌아가신 장로님 부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교회에서 뵈게 되는 그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분들이 바로 돌아가신 장로님 부부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 분을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살게 인도했고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게 하여 귀한 열매를 맺게 하였다.

그런 것을 보며 생각이 든 것은 이 세상에서 남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전도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 비록 사람이 능력이 없고 그렇게 스스로 대단한 일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였다면 그것은 아주 훌륭한 일을 한 것이다.

그런데 내가 목사로서 놀라

게 되는 것은 사람들은 목사의 말보다는 소위 평신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말을 더 잘 새겨듣고 믿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목사가 백날 말해도 “목사니까 저런 말을 하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 그런데 같은 평신도로서 하는 말은 아주 깊이 새겨듣는 것이다.

그 증거로 그 장로님 부부가 인도한 분은 그들이 가르쳐준 것을 그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로님 부부는 교회로 인도한 그분에게 무엇이 신앙인의 자세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지를 열심히 가르쳐 주었던 것이다.

이런 것을 보면 성도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또한 이뿐 아니라 그 돌아가신 장로님 부부는 교회에서 시험 들어 넘어져 있는 성도들을 귀한 신앙적인 조언의 말로 일으키는 일을 하였다. 그래서 그렇게 시험을 딛고 일어난 분들이 또 다른 시험에 든 성도를 일으키며 주의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을 보고 있다.

사람은 나이 먹고 병들어 이 세상을 떠나 주님 품에 안기지만 그들이 남겨 놓은 열매는 계속 자라고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한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진 것으로 남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그것을 위해 힘써 노력해야 할 것이다.

david2lord@hotmail.com

푸/른/초/장

라흥채 목사

(뉴욕제자교회)



징계라 하면 어떤 일에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고치지 않고 계속 똑같은 일을 할 때 징계로서 그 일을 올바른 길로 가게 시키는 일이 징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히 12:6)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 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히12:11). “매를 야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잠13:24)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깨달음과 징계의 의미를 전해 주셨습니다.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출10:15).

소돔과 고모라에는 성적 타락과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하므로(창18:20) 말씀과 같이 불로 징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서 관영함과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함이 너무도 악함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우심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으므로 인하여 BC 722년에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멸망하였습니다.

12지파 중 베냐민 지파와 유다지파 두 지파만이 남유다 왕국을 세웠는데 그 나라들이 부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들을 섬기므로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 미가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사야 45장 말씀같이 포로로 70년 만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회복되었습니다.

고레스 왕이 BC 539년에 바벨론을 점령한 후에 BC 538년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 스룹바벨과 학개 선지자와 포로들이 1차 귀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BC 458년에 지도자 에스라와 스가라 선지자와 포로들이 귀환하였습니다. 그리고 BC 445년에 지도자 느헤미야와 말라기 선지자와 마지막 포로와 귀환하여 성중건령을 완성하고 성벽을 완성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다니엘 1장같이 하나님은 징계 후에 반드시 회복하신다는 말씀이 남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므로

그러나 1990년도부터 과학이 발달하면서부터 많은 변화를 통해서 종교 다원주의와 동성애가 합법화 차별금지법 등등에 의해서 2020년에는 급속도로 많은 성도들이 사회 모든 시스템에 유혹되고 또 성도들이 그 시스템에 취하여 창세기 3장 3-5절 말씀과 같이 죄에 취해서 본질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므로 전도와 선교가 길이 막히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신자들이 줄어 들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선지자 다니엘, 에스겔, 요한계시록 일만서신 바울서신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돌아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는 로마서 11장 25절 말씀 같이 이방인의 총만 한 수가 잘 때 적그리스도 시대가 다가옴을 암시하고 있는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무서운 짐승(적그리스도)을 멀리하게 하기 위하여 징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바이러스 전염병을 두려워 말고 첫 사랑을 회복할 때 코로나바이러스는 우리 곁을 완전히 떠나갈 것 입니다. 두려워 마시고 담대히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모든 징계(바이러스, 전염병)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되어야 하고(고전3:16) 새 언약이 이뤄져야 합니다.

새 언약(히12:24)과 새 성전(렘31:33)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2:20)를 꼭 하여야 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 앞에 가서 나의 모든 기득권과 교만과 이집과 이기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십자가 앞에 죽었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곧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으로 내 몸이 성전 되고 새 언약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예수님(계1:7)을 맞이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andcny1@gmail.com

“하나님의 징계”

에스겔 14장 21절

홍수로 죄를 심판하시고 멸하였습니다(창7:4-5).

둘째: 남유다의 징계입니다

열왕기상 12:1-3에 솔로몬 왕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BC 931년에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예로보암이 10지파와 같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이 너무나 부유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3당을 세워서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와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

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으므로 인하여 BC 722년에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징계하리라 하셨습니다(렘25:11).

남유다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BC 605년에 1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 후에 BC 597년 2차 포로로 잡혀갔고 BC 586년에 솔로몬 성전이 다 붕괴해서 바벨론 군대들이 성전에 있는 구리와 금과 모든 제사 도구를 전리품으로 가져가고 3차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셋째: 코로나 바이러스 징계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에만 보아도 정말 순수하여 교회를 섬기며 많은 전도와 선교를 하였습니다. 교회도 너무나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사회가 교회를 간섭, 통제하지도 않았던 시절입니다. 단 공산주의는 통제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나라지만 우리는 자유롭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에스겔 14장 21절 말씀 같이 바이러스를 통한 전염병을 통하여 징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으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나 지금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요한계시록 2장 4절 같이 첫사랑을 찾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에스겔 14장 21절 말씀 같이 바이러스를 통한 전염병을 통하여 징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으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나 지금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요한계시록 2장 4절 같이 첫사랑을 찾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표류 아닌 항해하는 교회 되도록!

(2면에서 계속)

기독교 신학과 윤리의 많은 핵심 요소가 수정되거나 또는 아예 무시되는 것은 그래서 하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2. 신자들 사이에 만연한 행복 추구

복음주의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삶의 목적 또는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이 불신자인 이웃과 비교할 때 특별히 다른 점이 있을까?

1998년 에머슨과 스미스는 주류 개신교인을 “미국의 문화적 실용주의와 개인이 스스로 정의하는 행복이라는 도덕적 권위가 기독교적 가치를 재정의하고 있다”라고 묘사했다. 이 말은 일상에서 기독교 교리와 윤리적 지향점이 노골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삶의 목적과 자유에 관해서는 보다 더 일반적인 미국적 관점으로 대체됐다는 것이다. 주류 개신교인에게 신앙이 뭐

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다른 아닌 '개인적 만족과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 묘사했다고 에머슨과 스미스는 지적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도덕적 권위는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나 헌신적인 제자로서의 부르심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는 것이 된다. 신앙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사람과 잘 지내도록 만들어주고 또 기분전환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제 딱 한 세대가 지난 지금, 이런 진술은 복음주의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신자들의 사고방식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은가?

바로 이런 이유로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같은 말을 반복했을 뿐 아니라 굿 페이스(Good Faith)가 제공하는 충격적인 통계를 계속 인용하면서 노골적인 신앙의 개인화에 대해서 경고했던 것이다. 다양한 통계를 통해서 오늘날 미국에서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이 생각하는 삶의

목적이 전반적인 미국인의 사고와 다를 바 하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기 때문이다(미국에서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대다수가 생각하는 삶의 목적은 내면의 성찰을 통한 은밀한 욕망의 추구).

많은 숫자가 부흥을 의미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너무도 많은 교회 신자들이 교회에 가는 이유는 영적 활동이 아메리칸 드림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신론적 도덕치료로 만들어지는 기독교 그리고 사람으로 넘치는 교회다. 물론 그런 상황도 그리 오래가지 않겠지만 말이다.

3. 삶의 핵심이 아닌 한 부분일 뿐인 신앙

지난 세대에 복음주의자들과 주류 개신교인들 사이의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신자의 삶에서 차지하는 믿음의 중심성 여부였다. 복음주의자들은 믿음을 언급할 때 자신의 삶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중심으로 돌아간

다고 고백했지만, 주류 개신교인은 '신앙은 단순히 삶의 여러 중요한 측면 중 하나에 불과해서 마치 삶의 한 구석에 있는 가구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신앙은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질서와 의미를 제공하는, 강렬한 개인적 헌신이 필요한 무엇이 아니라, 단지 일반적인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는 당연한 삶의 한 측면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주류 개신교인과 자유주의자들은 교회 참여를 그들의 삶에서 바꿀 수 없는 근본이 아니라 다른 우선순위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많은 주류 및 자유주의 개신교인들은 교회 출석을 사회생활의 중심이나 영적 생활의 핵심이 아니라 일주일을 살면서 거치는 일상 중 하나로 말하는 경향이 있다.”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은 20여 년 전 에머슨과 스미스의 설문 조사에 응답한 사람들보다도 적은 빈도로 교회에 참석한다.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를 삶의 가장자리로 밀어버리는 이런 상황과 관련해 몇 년째 경고를 하고 있는데, 교회보다 다른 사회활동(운동경기참여, 가족여행 등등)을 우선시하는 가족이 어떻게 해야 율법주의에 빠져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적극적인 교회 참여와 관련해 적절하게 도전받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왔다.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자들에게도 한 세대 전 주류 개신교가 그랬던 것처럼 교회와 개인의 신앙이 삶의 가장자리로 밀리고 있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4. 식어버린 전도 열정

복음의 내용을 모를뿐더러 복음의 진리가 주는 확신도 없는 사람이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다. 기독교가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라 개인적 취향을 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굳이 왜 전도하려고 땀을 흘릴까? 천국과 지옥을 가르치는 영원이 존재하지 않고 유일하신 구세주를 믿는 신앙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받는 게 구

원이라면 굳이 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전도해야 할까?

스미스와 에머슨은 1990년대 후반, 자녀들 전도조차 우선순위로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식어버린 주류 개신교인의 전도 열정을 지적했었다. 오늘날 이런 측면에서 복음주의자들에 대해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진다. 우리는 지금 한 세대 전 선배들이 걸어갔던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급속한 수적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세기 말 이미 영적 쇠퇴의 증거가 주 오 교단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복음주의자들이 다가올 세대에 여전히 영적 활력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과거의 성공이나 현재 경험하는 성장 또는 건 강한 징후를 때문에 빠지는 안 일한 생각을 경계해야 한다. 영적 경계심을 잃지 않을 때, 어쩌면 우리를 미래의 붕괴로 이끌 지도 모를, 우리의 선배가 겪었던 동일한 문제에 빠지는 희생 양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무엇이든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본질을 벗어난 것을 타락이라 하고 부패가 되었다고 한다. 세상이 어지러운 것이나, 개인사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많은 부분에서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본질이 단수인 것도 있고 복수인 것도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모든 부분에 본질이란 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본질을 잃게 되면 결국 많은 것들이 변질되고 부패하게 된다.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하나님의 교회는 그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살릴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한다. 주의 몸 된 교회도 본래적인 사명해 충실하지 못할 때 교인수를 자랑하고,

돈 많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대형교회의 빛깔만 지향하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 큰 건물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여도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에 합당한 본질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

소금의 본질은 짠 맛인데 그 맛의 짠 것을 잃으면 더 이상 소금이 아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소금이라는 이름과 짠맛이라는 내용이 함께 할 때만이 비

찾아 가야 만날 수 있을까? 당연히 교회이다.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는 곳이다. 상처가 많은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바로 삶의 문에서 어디로 가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을 물으면 교회로 가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성도이다.

교회로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교회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가야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병든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가서 해답을 찾을 수 있었는가? 바로 예수님을 찾아가셨을 때이다. 예수님이 답을 주셨다.

오늘날 교회가 모든 문제에 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다. 교회가 답을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 자기의 문제에 답을 찾았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해 나아가며 따를 수 있었다. 그런데 교회가 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흩어져 어디선가 답을 얻으려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다시 말하면 교회는 말씀의 가르침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성도들은 이를 배우고 듣기 위하여 주의 교회로 모일 때, 저들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마침내 교회의 교회다움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의 음성을 듣는 길은 무엇인가? 개인 성경공부, 성경읽기와 묵상, 깊은 기도의 시간 등등 많은 형태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분명한 성경공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은 예배 중에 설교를 통해 듣는 말씀이다.

말씀의 해석에 혼란된 정통한 목회자로부터 한 주간 동안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된 순서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공동체를 중심한 가장 성숙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주의 전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말씀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라고 하면서도 스스로 만든 자신의 신을 얼마나 섬기고 살아가는지 모른다. 주일에 교회인근의 카페에서 성경을 펼치고 스스로

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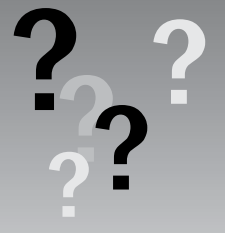
예수님은 입만 여시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 천국복음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설교의 핵심이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천국복음이었다. 이 천국복음이 사라질 때 교회는 변질되기 시작한다. 천국복음이 사라진 교회는 결국 세상의 가치를 쫓는 이들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고 잘 먹고 좋은 거 타는 것만 목적하는 인생들의 천국모임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세상을 살리는 길은 무엇인가? 주의 교회에서 천국복음을 들으며 무장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다시 흩어져 그 천국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는 것이 세상을 살리는 첩경이 된다.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것은 기술이나 기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그대로 '천국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천국을 전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잘된다는 땅의 말만 전하면, 우선은 듣기 좋아하겠지만 영혼의 참된 변화와 승리는 맛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얻으며 천국에 이를 구원을 확신하고 분명하게 말해야 함에, 오늘날은 그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잘되는 것만 이야기하기에, 혹여 잘 안되면 교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한국의 장자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가 평양 신학교를 시작으로 하여오다가 언제 분열되고 갈리게 되었는지요?

-LA개혁신학교의 Lee

A: 좋은 질문입니다. 장로교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설명은 역사신학자인 오덕교 교수의 장로교회사와 박용규 교수의 단편 글을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평양에 조선예수교장로회신학교가 1901년 5월 15일에 개교하고 1907년 9월 17일에 조직된 조선예수교장로회 독노회 시대를 거쳐 1912년에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1932년부터 시작된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는 한국교회를 시험대에 올려놓았습니다. 계속된 신사참배 강요로 조선예수교장로회신학교(일명 '평양신학교')가 1938년에 폐쇄되어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는 1938년 제27차 총회에서 자진하여 신사참

한일협정 무상지원, 파독 광부 간호원, 베트남전 파병, 기업육성 등으로 경제발전

배(우상숭배)를 가결하고 시행함으로써 배교행위를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1938년 10월 24일 한상동 목사가 부산 조광교회(草梁敎會)에서 총독부는 "정의 및 신의에 위반한 우상인 신사참배를 강요하니 오등은 굴하지 말고 이것에 절대로 참배해서는 못쓴다"라는 설교를 했고 이것이 훗날 한국교회의 역사적 신앙 고백에 기초한 고려파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고려파는 한상동 목사를 중심으로 신사참배자들에게 회개하고 근신할 것을 주장하자 친일파였던 김길창과 김관식은 신사참배 죄를 회개하는 대신 합리와 하는데 급급하였습니다. 교권주의자들의 횡포에 실망한 한상동과 주남선 목사는 1946년 고려신학교를 설립하고 정교도적인 개혁주의 신학을 전파함으로써 교회를 재건하려고 하였습니다.

1953년에는 김재준 목사의 자유주의 신학문제로 교회분열이 있었습니다. 김재준은 성경의 완전영감을 부인하고 사상적 영감을 주장하면서 한국교회의 보수주의 신학에 도전하였습니다. 장로교 총회는 1951년 김재준의 조선신학교 직영을 취소하고 1953년에는 그를 정죄한 후 목사 면직에 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회회를 이탈하여 한국기독교장로회를 조직하여 다시 교회분열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함경도지역 중심으로 일어난 교회분열입니다.

고려파와 기독교장로회의 분열이후에 한국장로교회는 1959년에 세계교회협의회(WCC) 가입문제로 제3차 분열을 경험하였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44회 총회는 경기노회 총대권 문제와 세계교회협의회 가입문제로 혼란을 거듭하다가 증경총회장단의 제의로 11월 24일까지 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임원불신입안을 제출한 후 서울에 올라와 연동교회당에서 회의를 속개하고 총회를 구성함으로써 제3차 교단 분열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총대들은 법대로 11월 24일에 서울 승동교회당에서 회의를 속개하였습니다. 승동측은 세계교회협의회(WCC)가 자유주의 신학과 공산주의자들을 인정하므로 그에 가입하는 것은 배교행위와 같다고 주장하였으나 연동측은 세계교회협의회에 참석하여 시대적인 조류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합동과 통합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도를 가장 중요한 일

그러므로 참된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예배하는 일이다. 예배를 드림으로 자신의 영혼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움을 받게 된다. 예배가운데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음성을 선명하게 들은 이들은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세상을 향한 성도의 최우선

- 본질과 타락, 예배와 전도

로소 소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용을 제대로 가질 때 교회는 교회의 모습으로, 존재의 유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일치되지 못할 때 이를 변질이라고 하고 타락이라고 하며 부패했다고 하는 것이다.

교회가 진정으로 가져야 될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이신 그가 하고자 하시는 일들, 그가 이 땅에서 행하시던 그 일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되는 것이다.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지속하여서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

코로나 이후의 사역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한 것을 본다.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환경적인 요소가 복잡해 보인다. 그러나 본질은 복잡하지 않다. 교회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곳'이다.

참 교회는, 먼저 모여야 한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최우선된 본질인데, 여기서 시작하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 어디를

변호사를 찾아가다. 그래서 답을 얻는다. 어떤 사람은 귀신들린 것 같아서 점쟁이를 찾아가더니, 해결이 된 것 같아서, 평생 점쟁이에 매여 살게 되었다. 악한 마귀의 종노릇을 할 따름이다.

Good Advice, Good News

교회가 줄 수 있는 답은 무엇인가? 교회는 많은 답을 줄 수 없을 뿐 아니라 줄 필요도 없다. 교회가 줄 수 있는 답은 오직 예수그리스도, 그의 가르치는 말씀이다. 그 말씀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내게 하는 힘이 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동행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사역이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다. 바다 위를 걸으셨고, 험한 파도가 칠 때 파도를 꾸짖으시면서 잠잠케 하셨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기적을 나타내셨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그가 가르치시는 말씀 그 자체였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다. 처음에는 열두 제자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지만, 실제 주님의 의도는 열두 사도를 통해서 온 세계를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고자 하신 것이다. 온 세계에 주의 복음을 전하여, 주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다.

예배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한국의 어떤 대표적인 목회자는 세상을 감동케 하기 위하여 교회 청년대학생들이 훗대 앞 나이트클럽에서 주일예배를 드렸다고 자랑하는 것을 본다. 그런데 그런 교회와 목회자에게 사람들이 몰려든다. 이것이 미래지향적인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교회라고 말한다. 사람을 모을 수는 있을지언정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는 거룩함의 본질을 놓치는 것이라 생각된다. 구별할 것을 온당하게 구별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본질을 잃지 않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세상의 변화, 복음의 전파

교회는 본질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사역에 거룩한 시간의 낭비를 해야 한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허접한 세상 이야기를 가지고는 교회를 세울 수 없다. 인터넷만 켜면 온갖 세상의 처세술과 그럴듯한 감동의 언어들 얼마나 범람하고 있는가? 마치 주인이 쓰는 도구가 주인을 가르치려 드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이다. 결코 온전한 사람을 세울 수 없다.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영혼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인데, 세상의 정보가 잠깐의 유익을 줄 수는 있어도, 결코 사람의 영혼을 세우는 일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오직 순전한 복음을 들려주고, 그 복음을 통해서만

회를 육하고, 싸잡아서 모든 세속화된 것보다도 못하다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스스로 교회의 빛을 어둠으로 가리우는 것이다.

천국에 관한 것은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다. 이 천국에 관한 것은 오직 우리들에게 주신 독단적이고 가장 개성이 뚜렷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전체 주제가 천국이다.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의 천국에 대한 복음의 선포와 계시의 모든 말씀들이 이를 드러내고 있다. 생각해보라. 이 땅의 많은 것을 가지고 번영을 누린다하여도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오는 죽음의 순간에 내가 어디서 눈을 뜰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면 그 인생은 결국 실패한 인생의 반열에 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교회는 분명한 구원의 복음, 천국복음의 소식을 힘있게 전해야 한다.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잉태하는 교회, 그 교회가 본질에 바로 선 참 교회라고 할 수 있다.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일

그러므로 참된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예배하는 일이다. 예배를 드림으로 자신의 영혼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움을 받게 된다. 예배가운데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음성을 선명하게 들은 이들은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davidnjeon@yahoo.com



목회서신



여승훈 목사
(남가주보배로교회)

“두 가지 관점”

어제는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매우 단순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은 영생 같은 것은 관심이 없다 하면서 자신이 관심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자신의 현실생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많은 현대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런 현대인들의 생각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말로 설명해주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믿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실세계에서 무엇인가 뚜렷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소망의 근거를 눈에 보이는 환경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일이 형통하면 소망을 있다고 말하고 일이 형통하지 못하면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시련이 없고 평탄한 날이 찾아오면 소망이 있다고 말하고 시련이 찾아오면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진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에 소망을 두라고 말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님께 소망을 두면 일이 형통할 때나 일이 형통치 않을 때나 시련이 없을 때나 시련이 찾아왔을 때나 변함없이 소망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은 크게 두 가지 관점을 가진 사람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신은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환경에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에 대한 관점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관점 사이에서 끊임없는 영적 갈등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 갈등에서 눈에 보이는 환경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지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관점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지면 낙심과 절망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승리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는 환경에 대한 관점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기울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환경에 지배받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붙들어주시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를 위해 이미 내밀어준 그분의 손을 잡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이 되뇌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이미 내밀어준 하나님의 손을 잡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에 대

한 이해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를 위해 이미 내밀어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존재와 활동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내밀어준 손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분임을 인식하는 것과 또한 그분은 우리를 위해 활동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환경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120년이

수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세상의 온갖 핍박과 박해로 인하여 비참하게 죽어가면서도 낙심과 절망 대신에 승리자로 확신을 가진 채로 죽어갔습니다. 결국 죽음의 순간에도 승리자로 확신을 가지며 죽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분이라는 인식과 그 하나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 활동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활동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존재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활동하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삶의 주인!!

newsong6364@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美정부 고위직 오른 첫 트랜스젠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상원 인준이 필요한 연방 정부 고위직에 성전환자(트랜스젠더)가 오르게 됐다.



미국 상원은 3월 24일 레이철 리바인 보건복지부 차관보 지명자 인준안을 52 대 48로 가결했다고 CNN방송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현재 상원 의석을 50석씩 나눠 갖고 있다. 이날 인준안 표결에서 민주당 상원의원 전원은 찬성표를 던졌으며, 공화당에서는 수전 콜린스와 리사 머카우스키 등 2명의 반대표를 제외하고 48명이 반대했다.

하버드와 톨레인 의대를 졸업한 리바인은 2017년부터 펜실베이니아주 보건장관을 지내며 주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을 지휘해왔다. 리바인은 커밍아웃한 트랜스젠더로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상원 인준을 통과한 미 연방정부 고위직 공무원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리바인을 보건복지부 차관보에 지명할 당시 “리바인 박사의 굳건한 리더십과 탁월한 전문지식은 거주지와 인종, 종교,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장애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팬데믹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예배 생중계 도중 무장괴한 침입

아이티에서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되던 예배 도중 무장괴한들이 목사와 교회 사람들을 납치하는 일이 벌어졌다.

미 일간 마이애미헤럴드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일 저녁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 외곽에 있는 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서 발생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있는 당시 영상엔 납치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설교하던 목사와 양옆에서 노래하던 남녀 성가대원이 갑자기 앞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몸을 낮춰 무대 한쪽으로 피했다. 이어 기관총을 든 남성이 다가와 이들을 끌고 카메라 밖으로 사라졌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날 괴한 8-9명이 차량 2대에 나눠 타고 침입했으며, 목사와 피아니스트를 포함해 4명을 납치했다.

인터넷으로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처음에 만우절 장난이나 어설픈 연극으로 생각했다가 마이에미헤럴드는 전했다. 현장에 있던 교회 관계자는 “이런 일까지 벌어진다면 이 나라에선 일어나지 못할 일이 없다”며 “교회든 학교든 어떤 기관에 대해서도 존중이 없다”고 탄탄했다.

카리브해 빈국 아이티에선 최근 몇 년 새 치안이 급격히 악화했다. 특히 몸값을 노린 납치 범죄가 지난해 200% 증가했다.

“생명 사랑하신 예수, 백신 지지하셨을 것”

복음주의 지도자 프랭클린 그레이엄(사진) 빌리그레함전도협회(BGEA) 회장이 최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현대 의학의 힘을 믿었던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코로나19 백신을 옹호했을 것”이라며 백신 접종을 독려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아들인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사가 된 뒤 BGEA를 이끌고 있다. 그레이엄 회장은 미국 ABC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백신을 맞지 말라고 설교한 걸 들은 교인이 백신 접종을 거부해 코로나19에 걸려 목숨을 잃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며 “백신 접종을 막는 목회자들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918년 스페인독감이 대유행하던 때 태어난 아버지도 많은 가족을 잃은 경험이 있다”며 “이 때문인지 아버지는 감염병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백신과 같은 예방책을 늘 지지하셨다”고 설명했다. 그는 “생명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백신을 지



지하며 맞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영국 옥스퍼드대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타가 22일 발표한 자료에는 미국 국민 중 한 차례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전 국민의 24%인 8142만명이다. 하지만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백신 접종률은 다른 종교는 물론, 흑인 복음주의자들과 비교해도 낮다. 미국 퓨리서치센터의 지난달 조사에선 백인 복음주의자 중 54%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거나 접종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로마가톨릭 신자와 흑인 복음주의자는 각각 77%와 64%가 그렇다고 답했다.

무슬림위한 30일 기도운동 시작

30일기도운동네트워크는 4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을 진행한다. 25일 밝혔다(포스터).

30일기도운동은 중동 지역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1992년 시작했다. 선교사들은 ‘라마단’ 기간에 맞춰 무슬림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 앞에 나아오도록 간구한다. 전 세계 무슬림은 이슬람력 9월을 신성한 달로 여기며 30일간을 라마단 기간이라 부르며 일출에서 일몰까지 매일 의무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한다.

콜로라도주에 본부가 있는 30일기도운동네트워크에는 프론티어스, 예수전도단, 이슬람과 트립 등 한국 선교단체도 협력단체로 참여한다.

기도운동을 위한 기도책자도 30개 언어로 번역해 전 세계 40개국에서 출간했다. 올해 기도책자 주제는 전 세계 도시에 사는 무슬림이다. 이들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들을 위한 명확한 기도제목을 담았다. 전국의 기독교 서점과 주요 온라인 서점을 통해 책과 전자책을 구매할 수 있다.

프론티어스 관계자는 “30여년에 걸쳐 전 세계 수십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무슬림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 뒤 회심의 물결이 시작됐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 무슬림을 섬기는 데 제한이 많은 만큼 선교사를 위한 기도가 더욱 절실하다”며 한국교회의 동참을 당부했다.



중요 범죄 맞선 아시아계 연대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인종차별로 인한 범죄 타깃이 되는 상황에 대해 자각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4일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16일 발생한 조지아주 애틀랜타 총격 사건 이후 아시아계가 슬픔을 공유하며 서로를 보호하려는 인식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시아계 혐오에 대항하는 연대 움직임은 미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고, 반 인종차별에까지 범위를 확장했다. 아시아계의 연대는 정치세력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NYT는 “그동안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인종적·민족적으로 미국 내에서 가장 투표율이 낮은 집단이었으며, 아시아계 공동체나 옹호 단체의 참여도 저조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투표율도 크게 높아졌으며, 공직에 도전하는 아시아계 출신 인사들도 늘었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 전체 인구는 3억3100만명으로 추산된다. 미국 인구조사국(센서스)은 2019년 7월 미국 인구조사에서 아시아계 비율이 5.9%라고 밝혔다.

NYT는 아시아계 이민자 대부분이 1965년 이후 미국에 들어왔고, 세대·민족·계층별로 갈라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NYT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정치세력으로 형태를 갖추고 있다”면서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유권자 그룹이 아시아계 미국인들”이라고 보도했다.

실제 아시아계 출신 인사들의 정계 진출은 활발해졌다.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과 함께 치러졌던 미국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한국계 의원 4명이 당선됐다. 이는 역대 최다다.

대만 이민자 2세인 앤드루 양은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양은 지난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과정에서 반짝 돌풍을 일으켰다가 중도 사퇴했다.

역시 대만계인 미셸 우 보스턴 시의원은 보스턴 시장의 강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여성인 우 시의원이 당선될 경우 1822년 첫 시장을 뽑은 이후 199년간 백인 남성이 독점한 보스턴 시장 자리에 오르는 첫 유색 인종 여성이 된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기업가이면서 보수정치활동가로 활동하는 필리핀계 마크 양은 “캘리포니아주의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숫자가 600만 명이며, 이는 싱가포르 전체 인구에 해당하는 규모”라며 “이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유권자 연합이 됐다”고 강조했다.



시론

(3면에서 계속)

나와 같이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지 않겠나? 참고로 제 처는 결혼 전 유치원 원장으로 오래 동안 일했습니다. 이 아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전도사님에게 야단맞을 거라고 잔뜩 주눅이 들어왔는데 자기가 제일 잘 할 수 있고 자신 있는 그림을, 그것도 사모님이

같이 만들자고 하니 너무 신났습니다.

그 후에 이 아이는 매일매일 동네 아이들의 모습들과 매주일 교회 예배드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신나게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림만화책 1권이 나왔습니다. 저와 제 처가 참 재미나게 봤습니다. 교회도 잔치 분위기가 났고 이 아이의 집도 경사가 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이 아이의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할머니까지 다 교회

로 전도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커서 지금은 한국의 대표적 인 만화가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주변에는 질리언 린, 스티브 잭스, 빌게이츠, 워런 버핏 그리고 이 아이와 같이 문제아로, 산만증후군으로 보여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 안에 무한한 잠재력을 심어놓으셨습니다. 우리들은 이들을 선부르게 판단하고 야단치고 정죄하지 말고, 믿

는 자들답게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가능성을 무한대로 끌어올려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시골에 가면 동네마다 펌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펌프 옆에는 꼭 물이 채워져 있는 작은 바가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문구와 함께, “펌프질을 한 후에 반드시 바가지에 물을 채워 놓을 것.” 이 바가지 물을 넣고 펌프

질을 해야 물이 나옵니다. 이 바가지의 물을 넣지 않고는 아무 리 펌프질을 해도 절대로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한 바가지의 물을 ‘마중물’(CALLING WATER)라고 부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각 사람들에게 주신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끌어내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는 통로, ‘마중물’(CALLING WATER)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남편

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목회자가 교인들을, 교인들이 목회자를, 내가 지인들을, 지인들이 나를 바라볼 수 있다면, 코로나 때문에 아치는 힘든 몸을 서로 격려하고 배려하며 함께 넉넉히 견뎌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생명을 나누면서 말입니다.

pastor.eun@gmail.com

주님의 날

전통적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은 보수적 신앙에 뿌리를 두고 주일성수를 매우 중시하여왔다. 온 종일 거룩하게 지내도록 구별된 특별한 날이다. 이 날은 한 주간 7일 중 하루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주님의 날'로 기억하고 오직 그가 뜻하시는 대로 지켜야 한다고 확신한다. 그래서인지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

신앙의 선배들은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가 매우 특별했다. 지저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러갈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깨끗하게 세탁한 옷을 입고 예배에 참석하였다. 헌금으로 드릴 돈을 따로 떼어놓았는데, 지폐는 다리미로 퍼서 가지런히 헌금봉투에 넣기도 하였다. 내한 선교사들이 초기부터 강조한 3자의 하나인 '자급'정신의 영향으로, 성도들은 교회사역에 헌신한 전도인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성미를 주일에 교회로 가져왔다.

성도들은 주일에 무엇을 하고, 하지 않느냐에 큰 관심을 기울여왔다. 일단 성도들은 주일은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주로 교회에서 보내는 날이라고 생각했다. 오전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성경공부를 마친 후, 홀로 또는 함께 전도하거나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졌고, 저녁에 다시 모여 예배를 드린 후 귀가함으로써 하루를 마감했다. 주일에는 오락이나 스포츠를 삼갔다. 돈쓰는 일도 금지하였다. 심지어 주일에는 공부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았기에, 월요일에 중요한 시험이 있는 경우에는 토요일 자정에 멈추었고 24시간이 지나 주일자정부터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정하고 자신을 위한 일에 얽매지 않으려 했던 모습 속에서 전적인 신앙적 헌신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자발적이었던 신앙의 열정이 시간이 흐르면서 율법주의로 흘러갔다. 진정한 심적 자유를 상실하고 의무감에 불과하게 된 것이다. 남에게 거룩하게 보여야한다는 압박감 외에도, 주일성수를 하지 않으면 자신이나 가족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피해의식도 한 몫을 했다. 아무쪼록 이유를 불문하고 보수적 뿌리를 지닌 한국교회는 주일성수를 매우 중요한 신앙의 척도로 삼았다.

주일 성수 - 변화

현대교회 성도들은 이전과 같이 주일성수를 엄격하게 지키지 않는다. 교회의 주일 모습에서 가장 쉽게 그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이전과 달리 주일에 단 한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일반표준이 되었다. 특히 오전예배를 1부 이상 드리는 경우, 다음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을 위해 속히 예배당과 파직장 자리를 비워야 한다. '저

녁예배'가 '오후예배'로 대체되었다가, 지금은 그마저 없어지는 추세이다. 물론 찬양대로 섬기고 주방봉사를 위해서 다른 성도보다 미리오고 늦게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있지만, 이전의 모습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현재 성도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주일을 보낼 수 없는 환경이다.

이런 변화가 생긴 이유가 무엇일까? 성도들이 살아있는 삶의 환경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는지 살펴보자. 일제강점기가 지난 뒤 조국의 광복과 함께 신앙의 자유를 얻었지만 이복에 출현한 공산당은 주일에 중요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에 교회는 주일성수를 위해 철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6.25전쟁이 지난 뒤 남한정부 역시 주일에 행사를 계획하고 시민들을 동원하였다. 군사

님나라와 이 세상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이원론에 입각한 것이다. 그 결과 더욱 주일성수의 의무를 강조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다른 하나는, 아예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예배로 이해하는 견해였다.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주일하루 또는 주일예배만 아니고,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견해이다. 혹시 여행이나 출장으로 인해 본 교회에 참석하지 못해도 인근 교회에서 드림엔 되고, 만일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면 혼자 또는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일을 은혜롭게 보낼 수 있다는 생각한다.

주일 성수 - 큰 변화

주일? 안식일?

초기 초대교회는 대부분 유대교회에서 회심한 성도들로 구성되었다. 자연히 할례와 같은 유대인의 규범을 중

가 된다. 이 날은 '안식 후 첫날'로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다. 그들이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근거였다. 향후 313년 기독교인들에게 자유를 허락한 콘스탄틴 대제는, 321년에 새로운 직령을 내려 로마제국 내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도록 하였다. 이미 이전부터 실행되던 주일제도를 콘스탄틴에 의해 확립된 것이다.

이 전통이 중세시대에도 이어졌지만 로마가톨릭교회는 중세 미신적 전통을 수용하고 율법주의에 빠져,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 행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과 직결된다고 가르쳤다. 이로써 루터와 칼빈과 같은 16세기 종교개혁가들로부터 도전을 받게 되었다. 이들은 주일성수에 관하여 보다 성경적이며 초대교회의 모습을 강조하였다. 미신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법과 전통에 눌러서 의무적으로 행하거나 공로적인 면을 거부하는 대신, 부활하여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이 제공하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선포되고 기념되는 날임을 분명히 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청교도들은 주일성수를 어떻게 지켰을까? 이들은 다시 주일보다 안식일 개념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유대교의 전통에 입각하여 이해했던 안식일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청교도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사건을 중시하고 그들의 주일예배의 중심으로 삼았다. 그들은 종교개혁가들과 근본적으로 일치하면서도 주일제도를 안식일제도의 연장으로 이해하고 보다 엄격하게 지키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청교도들은 주일이 안식일 후 첫날인 동시에, 6일간의 창조 후에 안식하신 하나님의 안식을 따라 자연법칙의 질서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이 안식일은 인간이 정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것이기에 반드시 교회가 지켜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 날은 하나님으로부터 쉬라고 명령받은 날이기에, 일상의 일과 오락을 금하고 휴식하여야 한다. 그 대신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하고, 또한 월요일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땅을 흘리며 힘차게 살아갈 준비하는 날이다.

초기 한국교회 선교사들에게 신학적 영향을 끼쳤던 조직신학자 찰스 하지(Charles Hodge, 1797-1878) 역시 청교도와 같이, 주일성수제도가 온 인류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확신했다. 이로서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주일에 다른 일에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하며, 반드시 안식일로서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보수적 신앙관이 매우 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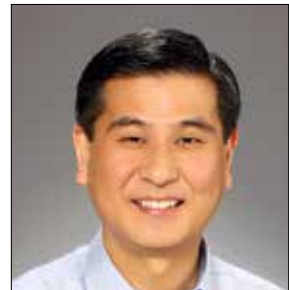
(16면으로 계속)

개혁의 땀방울- 무엇을 기대할까? (32)

부제: 교회가 가르친다!(19) - 주일 성수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혁명 이후에는 더욱 빈번하여지자 교회가 연합하여 주일행사를 중단할 것을 거듭 요청하였다. 정부가 공무원시험, 주산시험과 부기시험 등을 주일에 치르자, 역시 교회는 이를 시정해달라고 거듭 요청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교회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

위에 설명한 내용이 현대교회의 전체 모습이 아니다. 주일성수를 하찮은 것으로 자유롭게 생각하는 신앙인이 이미 대단히 많고, 앞으로도 코비드-19 여파로 인해 이 부류에 속한 성도들의 수가 급격히 많아질 것이라 생각된다. 한국교회의 경우, 2011년부터 주5일제 근무가 시행되면서 주일

심으로 혼동이 야기되었지만, 그리스도 중심의 새로운 신앙체제가 구축되었다. 주일성수도 마찬가지였다. 신약 성경에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안식일에 모였다는 기록이 있다. 즉 예배를 드리기 위해 토요일에 회집한 것이다. 이들 중에는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안식일 제도의 연장으로 이해하는 자들

안식하신 하나님의 안식 따라 자연법칙 질서 속에서 이해돼야 그리스도의 구속이 제공하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 선포 기념해

도들은 주일성수를 두고 갈등하게 되었다. 주님께 드리는 날이기에 자신을 위한 것은 과감히 포기해야 할 수 있다는 결단이 사회의 변화와 함께 서서히 허물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농경사회를 지나 근대화로 인해 주일에도 반드시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하는 사회로 전환되면서 초기부터 주일성수를 중시하던 한국교회는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런 환경에 대해 상반되는 반응이 있었다. 하나는, 전통적인 태도를 고집하는 것이었다.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하나

성수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 예배 시 교회 뒷자리에 앉았다 금방 자리를 뜨는 성도들의 수가 늘어났더니, 교회에서 열심을 내어 봉사하던 성도들이 주말을 끼쳐 가족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아졌다.

주일출석교인들이 줄기 시작하자 교회가 이에 대처하기 시작하였다. 아예 주일 교회를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오전으로 조정하기도 하였고, 떠나를 발목을 잡기 위해 주일에 유사한 레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교회는 대세의 흐름을 막기에 역부족이었다. 안 그래도 학생 자녀들

이 있었다. 그러나 초대교회 교부들은 구약 개념으로서의 안식일을 거부하였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안에서 영적 안식을 누리는 날이며, 또한 노동하며 수고하는 삶을 사는 인간이 이날 안식함으로 육체의 유익을 얻는 날이라고 가르쳤다.

초대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Ignatius, 35-107)는 '마그네시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성도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고 산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2세기부터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지키기 시작했다는 증거

(16면으로 계속)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p>감사한인교회</p> <p>담임목사: 구봉주</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헌액예배: 오후 2:00 영양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Tel. (714)521-0991, www.thanksgivingchurch.com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나성순복음교회</p> <p>담임목사: 진유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lalpcusa@yahoo.com / www.lalpc.com Tel. (323)9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남가주든든한교회</p> <p>담임목사: 김현인</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5:40(월-금)</p> <p>Tel. (714)446-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p>남가주사랑의교회</p> <p>담임목사: 노창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젊은이 예배: 오후 1:20 영아교(할스-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p> <p>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대흥장로교회</p> <p>담임목사: 권영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예배: 오전 9:30 성인영예배: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p>디아스포라선교회</p>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p> <p>대표: 전영자 목사</p> <p>"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p> <p>주일예배: 오후 2:30</p> <p>Tel. (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p>
<p>미주양곡교회</p> <p>담임목사: 지용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찬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월요일)</p> <p>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미주평안교회</p> <p>담임목사: 임승진</p> <p>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1부: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 오후 7:30</p> <p>Tel. (213)381-2202, www.mpcj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p>빛과 소금의 교회</p> <p>담임목사: 이정현</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5:45(월-금) 새벽기도: 오전 6:00(토)</p> <p>Tel. (310)749-4756 25401 S. Western Ave Lomita CA 90717</p>	<p>복음장로교회</p> <p>담임목사: 이광형</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6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p>베델한인교회</p> <p>담임목사: 김한요</p> <p>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예배: 오전 9:15, 11:30 영아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p> <p>Tel. (949)854-4010 / bethel@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p>	<p>세계소망교회</p> <p>담임목사: 오세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p> <p>Tel. (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열매교회</p> <p>담임목사: 김요셉</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p>	<p>엘피스사역원</p> <p>원장: 박운송 목사</p> <p>(LA)복음전파선교회 협동목사 상당사역: (월-금) 오전10:30-오후4:30(본) 사역대상: 1. 애환사역 2. 교회 평등도 여성부 3. 목회상담 4. 가정사역 5. 말성서 6. 네트워킹 사역</p> <p>http://www.elpisfamily.org/ Tel. (213) 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p>은혜한인교회</p> <p>담임목사: 한기홍</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침례: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온라인기도회: 365일 24시간 온오프</p> <p>Tel. (714)446-6200, www.graceim.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주님새운교회</p> <p>담임목사: 박성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 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명회: 오후 7:20(금)</p> <p>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p>	<p>주님의영광교회</p> <p>담임목사: 신승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금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p> <p>Tel. (213)749-4500, www.gccj.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p>	<p>좋은마을교회</p> <p>담임목사: 신원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p> <p>Tel. (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p>코너스톤 교회</p> <p>담임목사: 이종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310)530-4040(CH), www.cornestonetcv.com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203</p>	<p>토렌스조은교회</p> <p>담임목사: 김우준</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본당)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 (본당) 수요예배: 오후 8:00 (본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본당)</p> <p>Tel. 310-370-5500, www.torranceccgo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p>핼(PIM)선교회, 교회</p> <p>담임목사: 이훈우</p> <p>주일영예배: 오전 11:00 한어예배: 오후 1:00 교육부: 오전 11:00</p> <p>Tel 213 924-3340, pimismission1004@gmail.com 2533 Honolulu Ave # 4 Montrose, CA 91020</p>	<p>하늘소망교회</p> <p>담임목사: 김덕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수요예배: '여성들이여 일어나' 오후 9:30 오후 1:00</p> <p>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리더십 코멘터리 (132)



손동원 목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부활절 새로운 리더십을 소망한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기도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올해 부활절은 느껴지는 의미가 남다르다. 우리 사회가 절망과 어둠을 극복하고 새롭게 부활할 수 있느냐 하는 중차대한 역사의 변곡점이다. 예수의 부활은 인류에게 희망을 주었다. 부활절을 맞아 영적리더들은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회복과 치유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몸소 증명하셨다. 현재의 삶이 전부 아니다. 리더는 항상 저 높은 곳을 소망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우리 사회와 삶 곳곳에 비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기도한다.

리더는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영적리더는 깨어 기도하며 부활절에 대한 급박성을 느껴야 한다.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단 한 차례의 소중한 기회가 주어진 것일 수 있다. 또 다른 기회가 올 수 있다는 믿음의 빛에 빠지지 말라.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다. 부활절 메시지를 듣는 이들이 내년 부활절에도 다시 복음을 듣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든 다시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다치지 못할 수도 있음을 깨달았다. 영적리더는 너무 늦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급박성을 갖고 살아야 한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정보를 전달하는데 그치지 말고 부활설교를 통해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해야 한다.

리더의 목표와 행동지침

리더는 늦기 전에 복음 전해야 한다는 급박성 소유 부활설교 통해 성도들 삶에서 구체적 행동 요구해야

부활신앙은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삶에 기적을 불러오는 능력임을 영적리더는 체험해야 한다. 부활신앙은 교육과 프로그램에 의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죽어있는 나의 믿음과 나의 소망을 살아나게 하는 하늘의 능력이다. 부활신앙은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시키고 좌절과 낙심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위력을 갖고 있다.

저명한 보수주의 신학자이며 독일 비텐 리스트신학교 교장을 지냈던 에릭 사우어 박사는 이런 말을 했다.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해서 성도의 부활로 끝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개의 부활절 사이에서 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급박성을 갖고 설교하며 행동을 요구하라

성경에 보면 영적리더인 사도 바울에게는 일생을 다해서 직접 체험함으로써 알 고자 했던 세 가지 목표가 있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을 아는 것이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 세 가지를 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실천했던 구체적인 행동지침들이 기술되어 있다. 위에서 말한 세 가지를 경험적으로 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 으심대로 나도 죽음으로써 아찌하든지 나 도 주님처럼 부활하는 영광을 누리기로 했다"라고 말하고 있다. 영적리더는 더 높은 목표를 갖고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리더십을 펼쳐 나가야 한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리더십

죽음 없이 부활은 없고, 고난 없이 영광은 없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분명히 부활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부활하려면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먼저 죽음을 실천해야 한다. 사도 바

울은 때가 되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종말의 부활만을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았다. 주님이 부활했던 그 능력을 자신의 삶 속에서 체험하려고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실천했던 것이다.

우리는 소명자로 사명자로, 영적리더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리더십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이다. 부활이 진정한 감격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생활을 힘써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죽음의 현실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선포한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부활 신앙이기 때문이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열린 무덤의 틈새를 통해서, 끝 없는 부활과 생명의 흐름이 세계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바로 그것이 부활절이며, 바로 그것이 부활 신앙이다.

부활절 새로운 리더십

지금 우리 주변에 화려한 교회 건물장식과 외관을 자랑하고 항상 뒷자리에 앉아 존경받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이는 리더들이 많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경건의 모습을 보이고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리더십은 실패했다고 성경은 말한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리더십은 무엇인가? 그것은 중된 섬김의 리더십이다. 남을 섬기는 리더

십, 자기를 낮추는 리더십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며 모든 크리스천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태도이다. 여기에 기독교의 위대함이 있다.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하시는 새로운 리더십의 유형은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리더십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은혜를 늘 묵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 할 때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둘째, 하나님과 깊은 사귀어 있는 삶의 리더십이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있게 하는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셋째, 하나님을 높이는 직분과 직책을 감당하는 리더십이다. 자신의 직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넷째, 섬김의 리더십, 종 된 섬김의 리더십이다.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가장 강력한 리더십이다.

지금은 부활절을 맞아 리더의 신앙생활에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이 삶의 중심에 있어야 영향력 있는 리더십을 나타낼 수 있음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때이다.

sondongwon@gmail.com

사·모·칼·럼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의교회)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오늘 강합니다!' 우리는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질병 앞에서 강하다는 것을 담대하게 고백하십시오. 온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에 젖어 있을 때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 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고백하여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새기며 큰 확신으로 선포하며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종이 좋은 말만 전할 것입니다. 나는 질병이나 약함이나 두려움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만 전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자비를 얻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도움이 필요한 때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기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눅21:26)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세상에서 주님의 날개 아래 숨을 수 있는 은밀한 곳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숨을 곳은 바로 주님의 입재 안입니다.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합니다. 인생의 모든 폭풍과 인생의 모든 혼란과 모든 요동과 어려움 한복판에서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 관하여 무엇을 입술에 두겠습니까? 주님이 우릴 저버렸다고, 주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병과 슬픔과 어려움을 주셨다고 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그런 것들을 말해서 내 원수가 기뻐하도록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 대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환란 때 만날 요새 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반드시 믿고 따라가야 할 주님이십니다!'

나는 매일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입술로 선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장악할 때마다 나는 예수님의 피를 외칩니다. 그 피! 그 피! 그 피! 그 예수님의 피가 두려움을 대적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딤후1:7).

오늘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만 말할 것입니다. 하루 종일 시편 27편을 묵상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내가 시편 27편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갈 때 그것은 단지 기록된 말씀일 뿐 아니라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살아있는 내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전합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changsamo1020@gmail.com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p>		<p>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40 새벽 기도회: 오전 5:30 수요 저녁 예배: 오후 8:30 금요일 기도회: 오후 8:30 한국교회: 오전 9:30(토) Tel: (516)520-2004, www.nygetsemane.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p>	<p>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신국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수요 저녁 예배: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Tel: (718)357-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p>	<p>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02:00 주일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훈련: 오전 10:00 화,토 Tel: (718)265-2584, www.ik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p>	
<p>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6:00 (화-토) Tel: (917)733-7387, chungkitae@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p>	<p>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운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637-1470 45-50 162 St. #2Fl, Flushing, NY 11358</p>	<p>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예배: 오전 10:30 영양 예배: 오전 10:45 수요 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p>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철 www.cpcofny.org, Tel: (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p>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성희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 Tel: (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p>	
<p>리빙스턴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전인연합: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p>	<p>베이스айд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청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주일 저녁예배: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전교인특별찬양예배: 매주 토요일 오전 5:30 Tel: (718) 229-285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1 St. Bayside, NY 11361</p>	<p>사랑의동산교회 담임목사: 강신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성경: 오후 1:00 주일 E.M: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20 Tel: 516)433-0862 8 Duffy Ave., Hicksville, NY 11801</p>	<p>어린양 개혁 교회 담임목사: 유승래 EM 목사: 임지윤 On-line Worship Service: 11am Transformed Transforming Prayer Healing Ministries, Bible Studies, One-2-One, 2nd-3rd-Multicultural Ministries Jesus said "Feed My Lambs" (John 21:15) Tel: (845)848-2013</p>	<p>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30분) 주일 2부 오후 1:50(30분) 주일학교 오후 1:50(30분) 청년예배 오후 3:10(20분)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 (347)513-1351, cheongs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p>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15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886-4040, www.kapcc.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p>		<p>맨큐버릴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00(화-토) 오전 6:30(토) 금요기도회: 화, 목, 금, 토 금요영양 기도회: 매월(토) 오후 7:30 Tel: (804)584-5780, www.pcco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p>	<p>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p>	<p>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6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p>	
<p>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 FED., B.S., A.S., ARGENTINA</p>	<p>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p>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전 7:30 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p>	<p>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성경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p>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p>멕시코 현지인 교회 선교사: 임한곤 선교사 1. 멕시코 빈천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5:00 Tel: (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p>



목회서신

소중함을 아는 지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산다는 것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고 소중한 것들을 소중히 하지 않음으로 후회 없는 인생을 경영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감각과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짐으로 소중함을 알아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변화무쌍한 이 시대를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소중함이 무엇인지 알아 소중한 것들을 소중히 하여 상실하는 아둔

함의 길을 걷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의 소중함을 재발견했다고 합니다. 이전엔 날마다 주어지는 일상의 삶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지내며 일상의 행복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감당하는 그 일들이 우리 것들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일상의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취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모두가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상황이 어떠한 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곁에 허락하신 이웃들이 나 보기에 어떻게 몰라도 그들 스스로가 소중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감당하는 그 일들이 우리 판단과 달리 매우 소중한 일들입니다. 저는 교회를 목양하는 목사로서 소중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저 자신과 이웃들

과 교우들을 바라보곤 합니다. 교회서 받은 그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르고 가볍게 여기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소중함을 잘 몰라서 좋은 교인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이들도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여서 소중한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에게 공급되는 그 엄청난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이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신앙적 영적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딱한 이들을 바라보면서 소중함을 아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신앙적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종려주일, 고난주간, 성 금요일을 보내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는 교회 절기의 계절입니다. 이 소중한 교회절기의 계절에 저는 특별히 예수님의 겹세 마네 동산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 하신 기도의 교훈의

소중함을 매우 소중하게 기억하고 싶은 절실함이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 주님의 소중한 겹세마네기도 동산에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소중한 기도의 가르침의 소중함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시련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마26:41). 제가 이 기도의 교훈의 소중함을 이 계절에 거론함은 우리를 주변에 너무나 많고 심각하고 위험하게 하는 시련들이 산재해있기 때문입니다. 멀리는 미국의 국회 상원에도 심각한 국가 사회 역사적 시련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신, 불신을 막론하고 술한 가정들에게도 불행한 시련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시련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 현장에서 고충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물론 우리 모두가 시련에 들지 않고 또 다른 사랑을 시련에 들게 하는 실수를

없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는데, 시련에 들게 되지 않게 하는 그 소중한 비결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그 비결은 한 가지 방법뿐입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너무나 소중한 허락받은 특권이며 권세입니다. 기도는 시련하는 자를 결박하는 무기입니다. 기도는 자기를 발견하게 하는 현미경입니다. 기도는 시련되기 쉬운 체질의 사람을 시련을 잘 극복하는 좋은 교인되게 합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을 시련 들게 하지 않게 하는 겸손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의 소중한 말씀으로 시련에 드는 일이 없는 평화로운 가정, 은혜스러운 교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계절에 더욱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cyd777@hotmail.com

본사방문

찬양하는 허영란 목사

찬양의 '날개'로 영혼 살리는 '행복한 나라' 전하고파

'일어나라 아이야 다시 한 번 걸어라/ 뛰어라 젊음이여 꿈을 안고 뛰어라/ 날아라 날아라 고뇌에 찬 인생이여/ 일어나 뛰어라 높이 말고 날아라/ 어느 누가 청춘을 흘려가는 물이라 했는가/ 어느 누가 인생을 떠도는 구름이라 했다'.... 1983년 가요톱10을 주름잡던 '날개'라는 이 노래를 아직도 많은 이들이 기억하고 있다. 요즘도 명곡으로 손꼽히며 가수들의 애창곡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정작 그 노래를 부른 허영란 가수를 기억하는 이들은 흔치 않다. '날개'로 인기가 절정이었을 때 갑자기 무대를 떠났기 때문이다. 최고의 인기가수가 모든 걸 내려놓

고 선택한 것은 결혼, 허 목사는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오게 됐다. 이민의 삶 가운데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하며 찬양사역 목회자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찬양을 통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허영란 목사가 최근 본사를 방문했다. 그간의 삶과 사역, 새롭게 출시될 음반을 통한 앞으로의 비전을 들려주며 기도와 응원을 부탁했다.



9면, 사진 설명 허영란목사의 찬양 1집 음반

나는 기회를 만들고 키(key)를 삼아 세상을 향해 나가는 비전을 갖고 있다는 것. 허 목사는 "하나님 저에게 주신 달란트는 음악이고, '날개'를 주셨고 날개로 최고의 정상에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날개를 바로 사용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한다. 그래서 새롭게 구성한 음반에 '날개'를 넣고 '행복한 나라'라는 노래를 타이틀 곡으로 정하게 됐다고 한다. 허 목사는 자신이 노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고 말한다. 그가 '날개'를 부른 것은 행운이라고도 말한다. 이 '날개'라는 음악을 듣고 불

터 거저 선물로 받은 찬양 능력의 검을 들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기쁜 소식'을 전하러 달려가기 위함이다. 허 목사는 "사실 한국에서 '날개'를 부르고 그만 둔 후 다시 가수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음악을 그만 둔 것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잘 그만 두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몇 년 전, 가수를 그만둔 지 33년 만에 우연히 조운과 작곡가를 만났는데 선교사가 되어 있었어요. 작곡가 선교사, 가수 목사가 만나 다시 음반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제가 찬양음반 1집을 내고 보니 기독교인들 외엔 듣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가사를 보면 다 복음이고 하나님 이야기인데, 하나님 부분을 당신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공용방송에도 나가고, 믿지 않는

이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라고 두 번째 음반을 소개했다. 허 목사는 '노래'를 가지고 사람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더욱이 한국인들은 노래를 좋아하기에 새롭게 리메이크한 이 곡으로 사람들을 만

안한 사회 속에서 열정을 잃어 버린 젊은이들과 감동을 나누고 죽음을 생각한 이들이 날개를 듣고 변화 받고 병상에서 삶의 무게에 지친 사람들에게 노래로 힘과 용기를 주는 노래로 대화하고 싶다는 것이 허 목사의 비전이다. 그렇게 영혼을 터치하는 찬양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고 한다. 37년이란 세월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보니 어느 날 전도사, 선교사, 목사가 되어있더라는 것. 그렇게 자신을 이끄신 하나님이 다시 노래를 하게 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셨다는 것이 허 목사의 고백이다. 타이틀 곡인 '행복한 나라'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살아가는 이 땅에서 꿈을 꾸며 사는 행복한 나라, 천국을 누리야 한다는 외침이다.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천국에 가서도 행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안 계신 이 땅을 모신 이 땅의 삶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허 목사의 지론이다. 타이틀 곡, '행복한 나라'는 그런 정신으로 은혜가운데 불렀다고 한다. 허영란 목사는 "노래는 입으로 부르는 노래, 감동으로, 가슴으로 영혼으로 부르고 듣는 노래가 있습니다. 정말 노래로 영혼을 터치하는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조운과 선교사님께서 노래하지 말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셨어요. 아름다운 선율을 타고 부르는 내 노래로 듣는 이들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잠깐

들리다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남아 소망과 희망을 말해주는 노래,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곡조 있는 대화로 만천하에 알리고 싶다"고 말한다. 사실, 그동안 '허영란' 하면 예배 때 아니면 절대 노래하지 않는 자라는 낙인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조용하게 사역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오직 하나님 필요할 때, 가라할 때, 서라할 때 외에 마이크를 함부로 잡지 않았다는 허 목사.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조운과 선교사와 허영란 목사를 만나게 하셔서 과감하게 마이크를 잡고 노래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것이다. 허영란 목사는 "오래전부터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날개는 하나님이 믿는 선물로 받은 것이었습니다"라고 말하며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거듭 고백하며 "노래는 놀이문화의 도구 아닙니다. 인격을 가진 인간에게 즐거움만 준다면 음악의 문화는 전박할 수도 있지요. 사람의 감각만 터치하는 음악적 비트는 사람의 정서를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사단에게 쓰임 받는 것이지요. 저의 노래를 통해 나의 향기와 인격을 담아 사람들에게 오래 남는 이야기를 부르고 싶습니다"고 말하며 "함께 동역할 반주자를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영란 목사 초청과 사역에 관한 문의는 (310)428-8184, nani777pa@gmail.com으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KAPC 목사장으로 전국기도회가 이틀간 화상으로 진행됐다.

"기도해야 삽니다" 주제

KAPC 목사장으로 전국기도회, 이틀간 화상으로

미주 한인 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조문휘 목사) 목사장으로 기도회가 "기도해야 삽니다"라는 주제로 지난 22일과 23일 오후 4시(동부시간) 온라인으로 개최됐다[첫날기도회, 본지 1819호 10면 참조]. 각 지역별로 열렸던 이 기도회는 올해 펜데믹으로 전국 기도회로 진행됐다. 23일, 첫날보다 더 많은 총회원들이 참가한 둘째 날 기도회에는 김성일 목사(교육부서기) 인도로 박덕근 목사(가주노

회) 기도 후 부총회장 오세훈 목사가 "목회자를 풍성하게 하는 기도"(벨1:9-11)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오세훈 목사는 "죽는 순간까지 해야 할 기도는 내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구하는 행위"라며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3가지 기도-"사랑이 풍성하기를 위한 기도, 진실과 총명이 풍성하고 허물이 없기를 구하

는 기도, 의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위한 기도"에 대해 언급했다. 오 목사는 "세상은 우리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본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창문이다. 우리가 이 창문을 하나님의 사람이 풍성하고 진실하게 닦아서 의의 열매가 풍성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자"고 말했다. 예배 후 이윤석 목사(뉴욕노회) 사회로 6개 기도제목과 놓고 5분여 합심기도 후 마무리 기도가 진행됐다. 기도제목은 △45회 화상총회가 은혜롭게 될 수 있도록/이종원 목사(뉴욕노회) △계속되는 총회사역을 위해/김선중 목사(삼일교육위원장)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받는 교회들을 위해/이규섭 목사(뉴욕동노회장) △소망이 넘치는 총회가 되도록/조용철 목사(교육부장) △KAPC 목회자들과 교회를 위해/이윤석 목사(인도자) △선교사들을 위해/조문휘 목사(총회장)가 마무리 기도했다. (유원정 기자)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제14회 올네이션스 연합중보기도 컨퍼런스

지난 3월 28일 열방의 회개와 부흥을 위한 GIM(글로벌 국제선교교회연합, 대표 정운명 월넛크리치아임교회 담임 목사) 주최 제14회 올네이션스 연합기도 컨퍼런스가 샌프란시스코 제일버마침례교회(Rev. Yishey Latt) Virtual Conference로 오후 5시 생방송으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역대기하 7장 14절("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찌라") 말씀을 주제로 미국내 미주류교회들과 지역사회의 연대한 35민족과 미국 외 핍박받고 억압받는 국가의 교회지도자들과도 함께하는 대회였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한국, 이란, 티벳, 네팔, 중국, 홍콩, 타이완, 미얀마, 인도네시아, 태평양아일랜드, 중남미, 에티오피아, 케냐, 인도, 파키스탄, 필리

핀, 뉴질랜드, 요르단, 이스라엘(Jewish Messianic) 등 미국내외의 35여 다민족이 참가했다. 대회장 정운명 목사는 "이번 대회에서 미국의 교회들이 연합해 지구촌에서 핍박받고 억압받는 민족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와 격려를 촉구하자"고 전했다. 복음적인 미국 주류 교회들이 연합해 미국의 회개와 회복 선언, 열방의 회개를 위해 연합기도 컨퍼런스가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한반도와 중국, 홍콩을 비롯해 이스라엘, 중동지역 이슈 그리고 미얀마 지역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함께 기도하며 발표했다. 화상으로 컨퍼런스에 참가한 한국의 이애란 박사도 "대한민국이 북한과 같이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되고 교회가 억압받는 나라가 되지 않아야 된다"고 전하며, "한반도가 복음으로 신앙의 자유를 갖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을 위해 기도하자"고

발했다. 또한 미국의 회개와 부흥을 위해 기도한 후 공산세력과 비 진리로부터 위협과 탄압을 당하는 중국, 북한 지하교회, 티베트, 위구르, 파키스탄, 이스라엘, 홍콩, 타이완 등과 미얀마의 사태를 위해 함께 기도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많은 미국의 교회지도자들은 "비진리와 공산세력으로부터 핍박과 탄압을 받는 각 민족의 기독교 신앙인들의 자유와 정의를 위해 미국내 복음적인 교회들이 협력해 돕기로 했다. 미국내외에서 35민족을 대표한 각 민족교회·선교지도자들이 화상으로 참여한 연합기도 컨퍼런스에서 Kevin Waldrop 박사(South West University 교수)의 사회와 대회장 정운명 목사의 개회인사, 시애틀 Covenant교회 Jeef Reed목사의 개회기도, YIshey Latt 목사(샌프란시스코 버마 침례교회)의 환영사, Rick Durst교수(Gateway Seminary)의 메시지, Don Fugate 목사(산호세 Foxworthy 교회) 축도가 있었다. (기사제공: GIM)

동부교계 기사판

어린이, 청소년 설교대회

뉴욕한인교회협의회(회장 문석호 목사) 제47회기가 다음세대 부흥을 위한 '할렐루야대회 희망프로젝트 1'로 '어린이, 청소년 설교대회'를 개최한다. 일시는 5월 16일(주일) 오후 5시 뉴욕호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열리며 참가를 위해 4월 23일(금)까지 신청해야 한다. 교회별로 최대 2명까지 출전이 가능하며(1-5학년 중 1명, 6-12학년 중 1명), 교협 소정양식의 신청서와 함께 설교 원고를 교협 이메일(nyckcg@gmail.com)로 보내면 된다. 언어, 본문과 제목은 자율적이며 설교길이는 7분 내외, 예선통과자만 본선에 참여할 수 있다.

▲문의: 총무 한기철 목사(646-520-7667), 서기 박시훈 목사(917-992-5200)

성경암송대회

주님의식탁선교회(대표 이종선 목사)가 주최하는 성경암송대회가 10월 11일 오전 10시 열린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신청비 40달러(식사 포함)를 선교회 사무실(35-14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4)로 보내면 된다. 한국어와 영어로 나눠 최우수상 5백 달러와 1, 2, 3등 및 장려상에게 시상한다. 암송구절은 15개로 분류된 항목을 신청서 선택하면 된다.

▲문의: (347)559-3030

뉴욕가정상담소 43기 핫라인 자원봉사교육

뉴욕가정상담소 제 43기 자원봉사 교육이 4월 13일(화)부터 5주 동안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Online Zoom을 통해 진행된다. 본 교육과정에서는 가정폭력에 관련된 법적 지원, 경제교육, 알코올 및 약물중독, 뉴욕 내 임시주택과 쉼터, 피해자 보상제도, 아동 및 노인학대, 성폭행 관련 교육과 방지책, 상담방법 등을 전문 변호사, 경찰, 상담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로 초빙된다. 교육이수 후 24시간 핫라인 디스패처로 활동할 수 있다. 또한 본 교육수로 봉사자들의 모임 '하모니'에서 지속적인 자원봉사와 더불어 정기적인 재교육 및 친목을 도모한다. 개인은 물론 단체수강도 가능하다. 접수문의: Volunteer@kafsc.org 접수신청: https://kafsc.org/ko/volunteer

▲문의: (718)460-3800

부활의 예수 만나 산 소망 이루자

뉴욕/뉴저지교협 부활절새벽연합예배 온오프로

2020년에 이어 코로나 팬데믹 2년차 부활절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 교협은 4월 4일 부활주일 새벽 부활절 새벽연합예배를 대면과 함께 온라인 병행으로 드렸다.

지난해는 일부가 참가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열렸으나 그나마 올해는 회장이 시무하는 뉴욕호신장로교회(문석호 목사)와 뉴저지순복음교회(이정환 목사)에서 대면과 병행으로 진행됐다.

다만 뉴저지교협은 온라인에 배로 결정하고, 뉴욕교협은 각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추천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 효신교회에 모이자고 홍보했다.

뉴저지 부활절 새벽연합예배는 사회 고한승 목사(부회장), 대표기도 김동권 목사(총무), 성경봉독 양혜진 목사(회록서기), 설교 이정환 목사(부활의

산 소망', 뱀전1:3-5), 합심기도, 봉헌기도 최다니엘 사관(사무회계), 특송 뉴저지남성목사 합창단, 축도 장동신 목사(직전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합심기도는 육귀철 장로(부회장)가 '미국과 한국을 위해, 최재형 목사(기독교사)가 '뉴저지교계와 목회자들을 위하여', 김건일 장로(사무회계)가 '뉴저지 교민사회를 위해 그리고 아시안 혐오사건 종식을 위해' 기도했다.

뉴욕 부활절 새벽연합예배는 조원태 목사(준비위원장) 인도로, 기도 박마이클 목사(한마음 침례교회), 효신교회 찬양대 찬양, 설교 김정호 목사(후러신제일교회), "갈릴리에서 만나는 부활의 예수, 막16:1-8), 부활절 메시지 문석호 목사(회장), 헌금송 효신교회 중창단, 헌금기도 한기철 목사(총무), 서기 박시훈 목사(서기), 축도 양희철

목사(증경회장) 순서로 진행됐다.

뉴욕교협 회장 문석호 목사가 부활절 메시지를 전했다. 문

회장은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눈물만 흘릴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이시고, 아무리 슬프고 어려운 역사가 진행되더라도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부활절 연합새벽예배 준비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부활의 주님 향한 영광의 찬송하자

뉴욕교협, 부활절 연합새벽예배 준비기도회

뉴욕교협이 부활절 연합새벽예배에 앞서 3월 25일 준비기도회를 가졌다.

회장 문석호 목사는 "부활절 새벽연합예배로 한 자리에 모일 수 없어도 동일한 기도제목으로 기도해달라"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힘든 일들이 많지만, 죽음을 깨뜨린 부활의 주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은 있어야 하며 희망을 갖고 인내하며 기도하자"고 인사말을 전했다.

오전 10시30분 친구교회(담임 빈상석 목사)에서 열린 기도회는 총무 한기철 목사 인도로 기도 박이스라엘 목사(기도분과), 성경봉독 이준범 장로(이사장), 설교 양민석 목사(직전회장), 특주 신우철 목사, 헌금기도 안경순 목사(회계), 특별통성기도, 회장인사 문석호 목사, 광고 박시훈 목사, 축도 김원기 목사, 식사기도 송병기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양민석 목사(뉴욕그레이트교회 담임)는 "48시간이 주는 교훈(요11:1-11)이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본문에서 예수님의 예상치 못한 반응(이들을 더 목으시며 누장을 부리셨다)을 보며 이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레슨은 무엇일까를 생각해왔다"며 직접적 이유와 간접적 이유로 설명

했다. 양 목사는 전자는 1)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 2)완전히 죽어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죽은적 해신 안됨), 후자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고백인 영적 수준에 대한 교양으로 1)이성주의를 넘어서라 2)책임전가의 논리를 넘어서라 3)예수님의 역사는 현재적으로 이뤄진다면, "코로나시대 교협에서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현재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통성기도는 1)2021 부활절 새벽연합예배를 위하여(김병욱 목사) 2)고난주간 금식기도 및 10-10연합기도회를 위하여(이준선 목사) 3)코로나19종식과 뉴욕교회들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윤오성 목사) 4)다음세대와 미국의 아시아인 혐오범죄 종단을 위하여(김준현 목사) 제목으로 진행됐다.

교협은 이날 모인 헌금과 부활절 당일 새벽연합예배 헌금은 미자립교회와 선교단체를 돕는데 사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뉴욕교협은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10-10 연합기도운동(매일 저녁 10시, 10분간 기도하기, 고난주간에는 하루 한기 금식)을 전개했다.

(유원정 기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3월 모임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구제기관이자 '영적기관' 기억하길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3월 모임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3월 모임이 지난 31일 오전 10시30분 리빙스톤교회(담임 유상열 목사)에서 열렸다. 1월 정기총회 후 2월 모임은 쉬고 두 달 만에 모임을 가졌다.

회장 유상열 목사는 회의에 앞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위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오니 마음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인사말을 통해 "기독교 NGO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일반 사회단체처럼 돼가는 것을 보게 된다. 우리 기아대책은 구제기관인 동시에 영적 기관임을 늘 기억하고 복음전파의 열정이 식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부 예배는 박성원 목사 인도로 기도 김인한 장로, 말씀 최창섭 목사, 합심기도 권캐더린 목사, 축도 전희수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최창섭 목사(뉴욕에셀선교회 담임)는 "그리스도의 마음(빌2:5-8)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토마스아퀴나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책에서 신앙의 본질적 가르침인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그리스도의 일생이 희생이며 순교였듯이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는 삶 자체다. 우리는 '신자되기 원하니' 찬송하지만 정작 신자로 살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본다"고 도전했다.

최 목사는 "본문에서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첫째, 하나님이었음에도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주님의 겸손을 배우고 실천해서 하나님 앞에서 쓰

임받자. 둘째,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원, 죄사함,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 내가 죽으면 많은 사랑을 살리고, 가정과 공동체를 살린다. 힘든 시기에 위로와 격려, 희망을 주는 사람, 산 순교자가 돼 평생 아름답게 쓰임 받자"고 전했다.

합심기도 제목은 스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회장 및 회원들을 위해 △결연 아동과 후원자들을 위해 △선교사들을 위해; 콜롬비아(김혜정), 페루(김중원 최은실), 과테말라(장경순 박윤정), 코트디부아르(김형구 이선미), 엘살바도르(황영진 황은숙) 선교사를 위해 기도했다. 2부 회의는 유상열 목사 사회로 개회기도 후 회장인사, 전 회장(권캐더린 목사)에게 감사패 전달, 사역보고 박진하 목사, 폐회기도 육민호 목사, 식사기도 한준희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전 회장 권캐더린 목사는 "지난해 코비드 팬데믹 시기에 아동후원금이 많이 끊겼지만, 또한 후원금도 많이 보내주셨다. 여러분의 기도와 협력으로 회기를 잘 마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기아대책은 아동후원의 투명성과 효율적 사역을 위해 후원자들에게 아동정보를 자주 보내도록 시스템을 잘 정리하고 후원아동 배가에 힘을 쏟기로 했다.

▲아동후원문의: (917)862-0523 (917)620-8964, 홈페이지 breadngospel.org (유원정 기자)



뉴욕호신장로교회 설립37주년 기념 임직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총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라

뉴욕호신장로교회 설립37주년 기념 임직식

뉴욕호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가 4월 4일 부활주일 저녁 5시 교회설립 37주년을 기념해 임직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장로 3명, 안수집사 6명이 임직했다.

문석호 목사는 "부활의 복된 날에 임직식을 하게 된 것이 큰 은혜"라며 "교회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임직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노력과 헌신으로 성장하기 바라며 임직식은 잠깐이나 총성은 오래 지속된다"고 임직자들을 격려했다.

예배는 문석호 목사 인도로 이경섭 동사목사의 기도 후 연합찬양의 찬양에 이어 이용호 목사(전 ARP NE노회장)이 설교했다.

이용호 목사는 "복된 하나님의 일꾼"(마24:45)이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임직자들을 축하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상을 받기 때문"이라며 "좋은 많은 총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많이 있다. 하나님의 일이 최고의 일이며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가장 잘하게 설계됐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 기도하며 총성하라"고 말했다.

2부 임직식은 경과보고 이후 성 장로(당회서기), 기도, 서약, 안수기도, 약수례, 공포 순서로 진행됐으며 축하 및 인사가 이어졌다.

축사 및 권면은 김홍석 목사(늘기뵤교회 담임, 전 뉴욕교협 회장)가, 답사 최정규 장로, 임직패 전달, 예물증정, 축가, 인사 및 광고 방연성 장로, 축도 방지각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김홍석 목사는 사도행전 1장 3절을 들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말했다.

최정규 장로는 "귀한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교회에 감사한다"며 "호신장로교회 선한 정치기로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방지각 원로목사는 축도에 앞서 임직자와 교인들에게 권면했다.

방 목사는 마틴 루터가 언급한 하나님의 두 가지 종류 일꾼에 대해 소개하며 "쓰이다 버림받는 원팔 일꾼 되지 말고 상급 받는 오른팔 일꾼이 되라"고 말하고 "오른팔 일꾼은 총성스러운 일꾼이다. 총성은 작은 일을 잘하는 것이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울 때 총성도가 나타난다. 그러나 끝까지 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런 사람들이 총성스러운 일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임직자는 다음과 같다. 수장로(시무) 최정규, 이은수, (명예)유원재(2009년부터 멕시코 평신도선교사로 헌신) △안수집사 강영목, 이성남. 이성진, 이진현, 최명호, 홍희범. (유원정 기자)

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회 제2차 월례기도회

(사)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이하 국조찬) 뉴욕지회 제 2차 월례기도회가 4월 4일 저녁 8시 줌미팅으로 열렸다. 이날 한국본부 사무총장 정도의 장로와 간사 나현정 과장이 참여했다.

회장 손성대 장로는 "부활의 기쁨이 한분 한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 드린다. 팬데믹이 끝나 건강한 모습으로 대면 기도회를 갖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모두의 건강과 가정, 섬기시는 교회와 교계, 국가와 민족, 대한민국의 안녕을 위해

서 기도해주시기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기도회는 명예회장 강현석 장로 인도로 대표기도 정도의 장로, 성경봉독(딤후2:1-4) 부회장 김태수 목사, 합심기도는 1)박해용 장로(부회장)가 "대한민국을 지켜주소서" 2)이계환 장로(부회장)가 "미국 사회에 만연되는 아시아인 증오 범죄가 종식되게 하소서" 3)장세환 장로(사무총장)가 "코로나바이러스로 고통 받는 한인사회가 빨리 회복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기도한 후 주기도문으로 마쳤다.

뉴욕지회는 매일 첫 번째 주일 저녁 8시에 월례기도회를 가지며 4월 15일부터 단비기독교TV와 2주에 한번씩 1분 기도회를 갖는다.

(사)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회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뉴욕지회 탄신146주년 경축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조국사랑 불길이 재점화 계기되길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뉴욕지회 탄신146주년 경축예배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뉴욕지회는 이승만 탄신 제 146주년을 맞아 3월 26일 뉴욕예은교회에서 경축예배를 열었다.

회장 김명옥 목사는 "146회 이승만 건국대통령 탄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어려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이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린다. 총회장 김남수 목사님과 온 지회장 그리고 미주에 계신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그분의 탄신을 맞아 다시 그분의 정신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한다"며 "건국 정신인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 자유시장경제, 반공정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음이 없다. 미주에서 특히 뉴욕에서 이 이승만 정신을 다시 기리는 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불길이 재 점화되기를 이 탄신일을 기해서 일어나기를 기원한다"고 인사했다.

오전 11시 시작된 예배는 사무총장 박진하 목사 사회로 애국가와 미국국가를 제창한 후 묵념, 인사 회장 김명옥 목사, 대표기도 노기송 목사(부회

장), 성경봉독 황일봉 장로(부회장), 설교 김용익 목사(부회장), 축사 황경일 목사(뉴욕교협 증경회장), 흥정학 회장(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헌금기도 최은종 목사(섬외), 광고 남태현 장로(수석부회장), 축도 안창의 목사(증경회장) 순서로 진행됐다.

김명옥 목사는 "기독교 나라를 세운 이승만"(막12:29-31, 갈5:1)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이승만의 신앙과 기독교 신앙에 대해 소개하며 "이승만은 권력을 이용해 부정한 재물을 모으지 않았다"며 "이승만이 가장 좋아한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갈5:1)는 말씀이다. 그의 생애는 우리를 신앙과 민족에 대해 깊이 생각해주는 계기가 된다. 조국평화통일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는 천국백성이 되자"고 강조했다.

동 사업회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한국일보 기획특집(2020.10.23)을 통해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업적 및 애국애족정신을 홍보하며 젊은이들에게 바른 역사를 가르치고 건국정신의 긴요함 등을 역설했다. 또 11월에는 제 5회 후원골프대회를 열었다.

한편 뉴욕지회는 5월 10일(월) 오전 11시 뉴욕예은교회에서 제 16차 연차 총회를 갖는다.

(유원정 기자)

남가주 한인교회 부활절예배 대면으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남가주 교회들의 대면예배가 지역별로 재개된 가운데 부활절을 맞아 남가주 교회들의 부활절예배를 대면예배와 온라인예배 병행으로 드렸다.

각 교회들은 정부방침에 따라 제한된 인원들이 실내 입장한 가운데 예배를 드렸다.

밸리연합감리교회(류재덕 목사), 베델한인교회(김한요 목사), 사랑의빛 선교교회(윤대혁 목사), 새소망장로교회(박장순 목사), 충현선교회(민종기 목사), 새생명비전교회(강준민 목사) 등이 대면예배를 실시했다.

또한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남성수 목사)는 백신 2차 접종 완료자들에게 한해 대면예배에 참석하게 했으며 나성영락교회(박은성 목사)는 3부(오전 11시) 예배에 한해, 그리고 오렌지한인교회(피세원 목사)는 2부(오전 10시)예배에 한해 실내예배를 실시했다.

한편 나성한인교회(신동철 목사)는 드라이브인 예배로 교회 파킹장에서, 유니온교회(김신일 목사)는 교회마당에서 대면예배를 드렸으며 11일부터 본당에서 현장예배를 실시한다. 선한정지교회(송병주 목사)

는 이날부터 5월 2일까지 야외 대면예배를 실시하며 5월 9일부터 실내 대면예배를 재개한다. 또한 생수의강선교회(안동

주 목사)는 11일부터 장로부부부터 실내 대면예배를 시작하고 남가주든든한교회(김현인목사)는 5월 첫주부터 대면예배를 시작할 예정이다.

(박준호 기자)



평등법저지운동설명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평등 가장한 악법... "하나님 뜻 분별"

평등법저지운동 초청 설명회, 강사 김태오 목사부부

평등법저지운동 초청 설명회가 지난 3월 25일과 26일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와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김태오 목사와 김사라 사모를 강사로 초청해 진행됐다.

평등법안저지 남가주운동본부 주관하고 청교도신앙회복운동, 미주성서화운동본부, 자마 등이 주최한 이 설명회는 대면과 온라인으로 열렸다.

25일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샘신 목사 사회로 열린 세미나는 신승훈 목사 기도, 송정명 목사 설교가 있는 뒤 김사라 사모의 강의로 진행됐다.

송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롬12:1-2)의 제목으로 "로마서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실천적 권면을 하고 있다. '평등'이란 의미는 좋다 그러나 이 법은 평등을 가장한 악법이다. 창조주리, 가정윤리를 파괴하는 것이다. 청교도 신앙위에 세워진 나라가 타락의 길을 걷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 이 법을 막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다.

이어 강순영 목사가 환영인사와 개요 설명을 했으며 법시모어 선교찬양팀의 찬양이 있던 뒤 김사라 사모가 등단했다.

김사라 사모는 "평등법(Equality Act)란 말이 좋은 말로 들리지만 이 법(A Comprehensive LGBTQ+ Civil Rights Bill)은 지난 2월 연방하원에서 찬성 224명, 반대 206명으로 통과됐다. 2019년도에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그때는 공화당 주도 상원에서 부결됐다. 이 주는 법안은 민주당 주도하에 다시 부활돼 하원통과, 상원에 회부됐다. 이 상원통과를 막자는 것이다. 미국내 4.5%에 불과한 동성애자를 위한 기준에 95% 국민들이 맞춰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황당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는 성경대로 가르칠 수 없다. 하나님의 창조질서, 결혼, 가정, 생명의 존엄성 등 하나님의 진리에 거짓으로 대적하는 법"이며 "이 법이 통과되면 1만 4천 4백 40만 명의 유아원 아이들이 후천적인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 의학적으로 위험하다고 검증된 사춘기차단제(Puberty Blocking Drugs)는 9세부터 줄 수 있으며, 성호르몬제(Cross-sex Hormones)는 14세부터, 성전환수술(Sex Change)은 18세부터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한 보호도 학부모 의견을 묻지 않고 제공할 수 있다. △공립학교, 비즈니스, 회사뿐 아니라 교회, 신학교, 기독교 학교와 단체들까지도(종교자유박탈) LGBTQ 직원을 차별 없이 고용해야 한다. 생물학적 남성에게 여자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및 여성들의 스포츠에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미전역에 합법화된다. △평등법을 지키지 않는 교회, 학교, 그리고 단체들은 연방과 주 정부, 지방 세금 면제 및 인증을 잃을 수 있다"고 실례를 들려 설명했다.

이어 김태오 목사는 "교회가 그동안 동성애에 반대해도 소송을 당하지 않은 이유는 1993년에 통과된 종교자유복원법(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RFRA)) 때문이다. 그러나 평등법이 통과되면 이 법의 효력이 무력화된다"고 말했다.

한편 세미나 후에 평등법저지에 앞장서고 있는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가 저지운동교회 사례 발표를 하며 동참을 호소했으며 강태광 목사는 광고와 함께 합심기도를 인도한 뒤 김경일 목사가 기도했다. 이날 모든 행사는 지용덕 목사 기도로 마쳤다.

(이성자 기자)



OC지역 부활절연합 새벽예배를 마치고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예수부활로 질병과 고통 치유

OC교협 부활절연합새벽예배, 설교 민승기 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협의회(회장 박상목 목사) 주최 부활절 연합새벽예배가 4일 오전 5시30분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렸다.

박상목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어둠은 물러가고 질병과 고통은 치유된 것처럼 코로나19 역시 종식돼 온 누리에 새생명의 신비와 은혜의 풍성함이 임하게 될 줄 믿는다"며 "이번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가 고통 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긍휼이 베풀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찬양팀 찬양인도와 박상목 목사 인도로 열린 예배는 황치훈 장로(OC장로협의회 회장)가 기도하고 민길 집사(OC전도회연합회 회장)가 성경 봉독했으며 지경집사가 특송했다.

이어 민승기 목사(미기총 회장)가 '다시 보리라(마28:1-10)'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민승기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에서 지는 것같이 보여도 최후의 승리를 보게 될 것"이라며 "하나님에 대한 신

뢰가 죽음이라는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 목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희망을 안겨주셨다. 부활은 절망을 딛고 일어난 우리의 희망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신 사역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구원을 뺏기지 않게 하시는 것"이라며 "예배를 통해 믿음의 첫사랑 첫 마음이 살아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합심기도 시간을 가졌는데 △입장수 목사(캘리포니아신학교 학감)가 '북미주 한인교회의 부흥과 성장' △이호우 목사(이사장)가 '미국의 영적 부흥과 사회적 안정' △추석근 목사(총무)가 '한국의 영적부흥과 사회적 안정' △서동민 목사(2세 지역 분과장)가 '2세 지역의 부흥과 성장' △주성철 목사(서기)가 '세계선교의 마무리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합심기도를 인도했다.

이날 예배는 한기홍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제14회 시로드리는 예배가 열렸다

시편 151편을 이어가자...

시편 제14회 시로드리는 예배 개최

문화선교원 시편(대표 이인미 전도사) 주최 제 14회 시로드리는 예배가 3일 오후 2시 줌 미팅으로 열렸다.

이인미 대표는 "시편사역 초반에는 시편 같은 시를 썼지만 요즘은 현대시를 연구하고 배워서 시의 경향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된다. 동인들 역시 시를 쓰는 재능과 은사들이 많이 부여됐으며 시의 경향이 삶으로 이어져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제는 균형을 잡을 때"라며 "시편151편을 이어가자. 신약의 시편 주님 오실 때 광과를 울릴 시를 써보는 마음을 갖게 됐다. 시편의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시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한다"고 말했다.

이인미 시인 사회로 열린 예배는 최명희 간사 대표기도, 신병욱 목사(로스펠리즈교회 담임)가 '전쟁의 위기 속에 부르

는 찬송(대하20:15-23)'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신병욱 목사는 "팬데믹이 전 쟁처럼 돼간다. 전 쟁터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금식하라"고 여호사바 왕이 선포한 것처럼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며 "백성들이 전쟁가운데 예복을 입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의 고백을 드렸고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숨겨두신 복병을 통해 적군을 섬멸해 승리를 안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편의 사역을 위해 합심기도 후 신병욱 목사 축도로 마쳤다.

이날 예배는 김크리스틴, 변숙현, 최운봉, 차숙영, 신승순, 김기환 등 6명의 시편 14기생들과 이선희, 조미나, 우지순, 안중미, 어미선, 정한나, 김지연, 최필음, 윤일홍, 김영숙, 김한필, 이예미, 허윤아, 이영인, 최명희 등 시편 동인들의 시가 소개됐다.

(박준호 기자)



주님세운교회 성도들이 마켓에서 평등법저지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평등법 제지 가두 서명운동

주님세운교회, 한인마켓에서 전개

주님세운교회(담임 박성규 목사)는 지난 3월 28일 오후 1시30분에서 3시30분까지 토렌스 한인체인과 스마트, H마트에서 납여선교회 성도들이 "평등법 상원통과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했다.

한남체인에 15명, 스마트에 12명, H마트에 6명이 나선 성도들은 뜨거운 날씨 가운데서도 진리를 사수하고 이 땅에 공의를 세우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했다.

주님세운교회 성도들은 직접

평등법의 해악을 설명하고 반대서명 방법을 알려주며 두 주일에 걸쳐 217명의 평등법 반대서명을 받았다.

주님세운교회는 코로나판데믹과 아시안 인종혐오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 미국의 기록성을 지키려는 불타는 사명을 안고 박성규 목사와 당회원들을 선봉장으로 특별 새벽기도를 진행하며 열심을 다해 현장을 찾아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성자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담임목사 청빙

산호세온누리교회는 담임목사 은퇴에 따라 산호세 온누리 신앙공동체를 이끌어갈 새로운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영혼구원과 목양 목회에 소명하고 열정이 있는 자 △정규 신학 대학원(M.Div. 학위취득자) 졸업하고 5년 이상 풀타임 목회경험(부목사 포함) △ECO 소속 또는 개혁교단 소속으로 ECO가 입이 가능한 영어/한국어 설교와 소통이 가능한 자 △미국체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이며 제출서류는 △이력서 △본인 및 가족 소개서(가족사건 포함) △신앙고백 1부 △목회계획서 1부 △목사안수 증명서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목회자추천서 3부(추천인 정보 및 연락처 기재 요망) △최근 6개월 내 설교영상 링크2-3개다. 제출서류는 5월 31일까지 산호세온누리교회 청빙위원장 김복수 장로에게 이메일(application.ocsj@gmail.com)로 보내면 된다.

▲문의: (408)971-2353

미디어 파트타임 사역자 모집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는 미디어 파트타임으로 사역자를 모집한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자기 소개서이며 서류심사 후 면접 통보한다. 제출서류는 이메일 gkcmmedia@gmail.com(attn. 김승욱 목사)로 보내면 된다.

▲문의: (714)446-6200

영어목회 미디어담당 디렉터 모집

나성영락교회에서 영어목회 미디어 담당 디렉터(파트타임)를 모집한다. 자격조건은 별첨 업무들을 함평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분이며 제출서류는 이력서, 2명의 추천서다. 서류마감은 오는 5월 15일이며 서류는 나성영락교회 인사위원회(office@youngnak.com)로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문의: (310)621-4136, (323)227-1400

예수님은 성경 예언대로 다 이루셨다

임마누엘선교회 리모델링 완료후 종려주일 예배

임마누엘선교회(담임 이병호 목사)는 종려주일 예배를 지난 28일 가졌다. 이날 예배는 본교회가 그동안 리모델링을 해왔으며 모든 허가절차가 완료된 후 갖게 된 첫 예배였다.

이병호 목사 사회로 열린 이날 예배는 백승호 안수집사가 기도했으며 본 교회 류종길 원로목사가 '나의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갈3:13-14)'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류종길 목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마지막 순간 무엇을 위해 사셨는가를 생각해보면 주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하고 감사하고 어떻게 나아가갈까 자체가 상당히 무거운 무게감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류 목사는 "예수님의 생애는 험한 생애였다. 출발부터 말구유 탄생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다. 예수님의 생애는 미움 갈등

압박 고난의 연속이었다. 마지막 종착역은 십자가였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다 이루셨다"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선명하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나를 알게 된다. 첫째,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저주를 감당하셨다. 내가 저주를 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것이 주님에 대한 보답이다. 둘째,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나 자신이 속량됐다. 그래서 죄의 노예, 가난, 질병, 고통, 그리고 근심, 미움, 죽음, 마귀의 저주에서 해방됐다. 십자가를 생각하며 저주에서 자유로워짐을 감사하는 고난주간 되기를 소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류종길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윤임상 교수, 크로아티아 오페라성악 국제심사위원

윤임상 교수(월드미션대학원)가 유럽 크로아티아에서 개최된 국제 오페라성악경연대회(Boris Martinovich Voice Competition)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

지난 3월 28일 크로아티아에서 개최된 국제오페라성악경연대회 심사위원은 총 8명으로 미국에서 윤 교수를 비롯한 2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했고 6명은 유럽, 이태리, 불가리아 등에서 지휘자로, 오페라디렉터로 활동하는 저명한 음악인들이었다.

이 경연대회는 세계적 베이스바리톤 보리스마티노비치(Boris Martinovich)가 주최하는 권위 있는 국제 성악경연대회로, 전 세계 16개 나라에서 27명이 결선에 올라 온라인

로 열린 경연을 펼쳤으며 올 경연대회의 대상은 영국 출신 소프라노 한나도브라(Hannah Dobra)가 차지했다.

한편 윤임상 교수는 지난 2020년 11월 이태리 Sannium University에서 개최된 국제 오케스트라 경연대회(International Orchestra Awards)에서도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내년 7월에는 로마에 위치한 오스티아 고대로마극장에서 개최되는 국제음악 페스티벌에 객원지휘자로 초청을 받은 상태다. 윤교수는 월드미션대 음악과 교수와 라크마 심포니오케스트라 및 합창단 지휘자, LA 한길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정리: 이성자 기자)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조찬예배

오렌지카운티기독교전도회연합회(회장 민길) 조찬예배가 3일 오전 8시 줌으로 열렸다.

민길 회장 사회로 열린 조찬예배는 전홍 장로가 대표기도했으며 박경철 목사(베델한인교회 부목사)가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마1:18-25)'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신용 수석부회장 인도로 중보기도 시간을 가졌는데

신용 수석부회장이 '미국과 한국을 위하여', 김도영 장로가 '오렌지카운티와 지역교회와 선교지를 위하여', 윤우경 이사장이 '기독교전도회연합회 사역과 모든 이사들의 건강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기도했다.

이날 예배는 박경철 목사 축도로 마쳤다.

(기사제공: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우울증과 영적 치유” (37)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목, TPPM대표

영적 처방: 10.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 선언하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희망이 있는 미래를 마음속으로 그릴 수 있다. 때로는 가슴 아픈 사건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평안과 기쁨을 빼앗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심하게 상처를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의 모습을 가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16:3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고전15:57).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요일 5:4-5).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권세가 있어서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하고 치유를 얻게 하신다. 고통스러운 시간에도 승리를 선언하는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산을 움직이는 신앙을 가지고 승리를 볼 것을 위해서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 중에 힘써야 한다. 성경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것은 당신의 삶이 승리로 향하는 여행의 시작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입으로 내뱉는 말로도 산을 옮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적인 말 대신, 특히 걱정, 근심, 절망, 실망, 용기 없음, 황폐한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사랑, 축복, 믿음을 선언하는 말부터 시작하라.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의 해방과 치유하심

을 찬양하고 감사하라. 당신이 실패했다는 느낌이 든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집중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의 가정, 그리고 일상의 모든 사건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승리 선언은 걱정, 절망, 용기 없음, 혹은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빨리 응답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실행한 행동이었다. 그것은 나에게 올바른 성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지혜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를 선언할 때 어찌할 수 없는 무력한 상황이 오히려 배움의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 이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의 권세와 자비를 전하는 데 사용하실 수 있다.

내가 불안이 엄습했을 때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었으므로

올 때마다 승리를 선언하는 습관을 지니게 되었고 그 이후로 더 이상 공포의 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지 않았다. 당신 자신만의 주님 안에서의 승리를 선언하는 기도문을 적어라. 아래에 내가 쓴 승리의 기도문이 있다.

1. 나 자신을 위한 승리의 기도문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한 결심에 대한 승리를 선언한다. △예수님은 내 삶에서 최우선 순위에 계신다. △나는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도 가지지 못한 궁극적인 권능을 내 삶의 모든 것에 걸쳐 가지셨다는 것에 승리를 선언한다. △나는 예수님께 나의 삶을 바쳐 섬긴다는 약속에 대한 승리를 선언한다.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음에 대한 자유함의 승리를 선언한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평안, 지

승리를 선언한다.

2. 나의 가족을 위한 승리의 기도문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가족들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 돌보실 것에 대한 승리를 선언한다. △나는 내 가족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는 승리를 선언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상이상의 영적 축복을 내 자녀에게 주실 것이라는 승리를 선언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이 신앙적인 멘토를 포함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실 것이라는 승리를 선언한다. △나는 우리 가정이 영적 은사로 축복을 받고,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는 승리를 선언한다. △나는 내가 우리 가정을 돌볼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실 것에 대한 승리를 선언한다.

고통스러운 시간에도 승리 선언하는 습관 길러야 위기상황을 하나님의 권세와 자비 전하는데 사용

승리 선포하는 법을 배웠다. 빙판길에서의 차 사고가 난 후, 나는 빙판길에서 뿐 아니라 빙판이 아닌 길에서조차 공포가 엄습해 와서 어찌할 수 없이 힘든 경험을 했다. 그럴 때는 평안을 찾을 때까지 몇 번이고 기도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나는 빙판길을 피하고, 불안이 엄습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하려고 노력했다. 결국 나는 불안의 공포에서 치유함을 얻으려고 승리를 선언하는 기도를 쓰게 되었다. 공포와 불안의 영이 나를 엄습하려 할 때는 언제나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장했다. 두려움이

해, 기쁨, 그리고 힘의 원천이라는 것에 대한 승리를 선언한다. △나는 하나님이 내가 상상한 이상으로 나를 모든 삶에서 축복하실 것임에 대한 승리를 선언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도록 인도하실 것에 대한 승리를 선언한다. △나는 나에게 상처를 준 이들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결심에 대한 승리를 선언한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치유를 받은 것에 대한 영적인 승리를 선언한다. △나는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서의 도전들을 잘 다룰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임을 알고

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신앙적 성장을 도울 것이라는 승리를 선언한다. △나는 내 가족의 존재와 사역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승리를 선언한다.

3. 내 사역을 위한 승리의 기도문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내가 상상한 이상으로 전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승리를 선언한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를 최대한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승리를 선언한다. △나는 사역과 책을 통해서 가난한 길 잃은 많은 영혼을 구하고 영적 성장을 도울 것을 선언한다. △나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에 나와 함께 사역할 강력한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성령님께서 보내 주실 것이라는 승리를 선언한다. △나는 영적인 치유가 필요한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자유함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도록 도우실 것이라는 승리를 선언한다. △나는 나의 삶의 초점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계획을 만들 것에 대한 승리를 선언한다.

다른 이들의 영적인 구원과 희망을 찾고, 치유함을 받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나의 재정적 자원을 그분의 뜻대로 관리할 수 있는 승리를 선언한다. △나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기쁨 부으심으로 나의 사역과 출판 계획을 통해 다른 이들이 성령님의 임재와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승리를 선언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다른 사역의 계획하심을 가지고 계시실 때, 내가 그분의 계획하심이 항상 나 자신의 것보다 낫기에 순종할 것이라는 승리를 선언한다. △나는 나의 이기심을 극복해서 예수님의 관심사를 돌아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실천할 것에 대한 승리를 선언한다. △나는 나의 모든 은사, 시간, 재능과 에너지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전심으로 섬기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는 승리를 선언한다.

yonghui.mcdonald@gmail.com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 (P국, 중동선교전략가)

원 스토리 5강 / 죄의 심판(창 6-9장)

죄의 심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에 속한 세상 백성들의 전쟁은 가인과 아벨로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서 힘과 능력을 가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들을 멸시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는 지경까지도 갈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용납하지도 않기에 마치 그들이 이 세상의 주인인 듯 왕처럼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세상에서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세상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의 시간에 모두 심판하실 것입니다(사2:12-22, 13:5-10, 24:1-23/렘4:23-26/겔28:19-23/나1:4-6/합3:3-12/습1:2-3,18, 3:8).

원하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사는 삶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 이 땅 백성들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좋은 대로 사는 삶'입니다(창6:2). 삶의 기준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창6:2). 그리고 이와 같이 원하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사는 인간 중심의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삿17:6/참고. 삿18:1, 19:1, 21:25).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좋아하는 대

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사는 삶,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사는 삶이 악이라고 선포합니다(렘2:19). 이제 이렇게 혼합된 세상은 용사와 명성을 가진 용감한 사냥꾼들을 배출할 것입니다(창6:4). 그리고 이들, 세상 영웅의 계보는 '네펠림'을 시작으로 구스의 후손인 '니므롯'(창10:8,9)과 크고 강한 '아나작속'(신2:10)을 거쳐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호전적인 '블레셋' 그리고 그들의 대표 장수 '골리앗'으로 이어질 것입니다(삼상17장).

또한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우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삼상8:5)라고 외치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삼상 9:2)을 시작으로 압살롬(삼상 14:25) 그리고 아도니야(왕상1:6)를 내어놓지만 하나님은 막내아들이며(삼상 16:11) 무명의 소년이었다(삼상17:56) 다윗을 택하시고(삼상16:1,12) 여호와와 영, 성령에게 크게 감동시키셔서(삼상 16:13)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뿐 아니라(렘13:22)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을 통해 거인족의 소생을 모두 멸하실 것입니다(삼하21:22/참고. 대상20:8).

죄의 심판

성경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지적합니다(창6:5). 행위언약을 어기고 은혜언약 아래 놓인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모두 죄인인 것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롬3:10-12/참조. 시14:1-3, 53:1-3). 그리고 이 패역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역사를 통해

증명하였습니다(신 9:24/참고. 삼상8:8/왕하 21:15).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십니다(창6:13). 이 홍수의 심판이 비록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신(창6:17) 모든 생물을 쓸어버린 심판이었지만(창7:23)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것의 쌍들은 구원을 받은 은혜의 심판을 알 수 있습니다(창 8:18,19).

하나님의 한탄, 하나님의 근심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고 말합니다(창6:5-7).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을 예상하지 못하시고 범죄하지 않으리라 기대하셨는데 그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후회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민23:19/참고. 롬11:29).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을 조장하지 않으셨지만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타락한 죄인임을 아는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깨닫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눅 18:9-14).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 중에 거함으로 하나님과 부끄러운 관계가 되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민 6:24-26).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미 창조 전에 모든 것을 알고 계셨지만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그러므로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방주에 관한 명령을 들은 때부터 홍수가 시작된 노아 600세(창7:6)까지는 최대 98년이라는 시간에서 노아가 아무런 빨리 아들들을 낳고 결혼을 시작해도 그 98년에서 약 20여년은 다시 줄어든 것입니다. 결국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 명령을 언제 받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방주를 만든 기간은 대략 8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방주의 완성이 주는 의미

비록 120년간은 아니라할지라도 대략 80여년의 시간 모든 사람들의 조소와 비난과 비방 속에도 마침내 방주는 완성이

창9:20-27).

홍수

성경은 사십 주야를 비가 땅에 왔다고 기록합니다(창7:12). 그리고 물이 불어서 산들이 잠기고(창7:20)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고 새들도 다 죽고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습니다(창 7:22). 성경은 '큰 깊은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창7:11)고 합니다. 창조시 둘째 날 하나님이 명하셔서 빛과 물과 아랫물로 나뉘고 물과 바다로 나뉘는 질서가 다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일순간 깨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 인류의 수명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물층이 그때 쏟아짐으로 인간의 생존 환경은 매우 열악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끝나자 그 깊은의 샘과 하늘의 창문을 닫으셨습니다(창8:2).

방주

죄의 심판, 물로 인한 심판은 모든 생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만은 구원을 받았습니. 그 방주는 바로, 죽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판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하나님의 공의, 그 진노를 받아내시고 죽으심으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증거, 무지개

하늘에서 쏟아진 진노는 세상을 다 덮고 오직 방주 안에 있는 생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호흡있는 생명을 심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지개를 증거로 삼아 언약을 주십니다(창9:13-16).

(16면으로 계속)

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고 선포하십니다(창6:3). 이 말씀은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이 120년이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인간의 수명이 대략 120년 전후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아들 셈은 그의 아들 아르박삿을 100세에 낳았는데 그때는 홍수 후 2년이 지난 시간이었기에(창 11:10) 홍수가 땅에 있을 때 셈은 98세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노아는 셈을 502세에 낳은 것이 됩니다. 또한 노아가 방주의 설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때는(창6:13-21) 이미 아들들이 결혼하여 며느리들이 있었습니다(창6:18).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대로 다 이루어집니다(창7:5).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완성하시고야 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었기 때문입니다(창6:8). 그리고 이 방주 완성의 의미는 앞으로 이어질 성막의 완성(출39:43)과 성전의 완성(왕상7:51/참조. 대하 5:1)을 넘어 진정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2:19-22)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요19:30).

의인 노아

성경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창6:9)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노아 자체가 의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창6:8)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멸망할 백성들보다는 나은 상대적인 의였을 뿐입니다(

매일가정예배

허훈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시16:1)

시편 16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특징”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아름다운 시이며 “다윗의 순금의 시”라고도 부르며 에인즈워즈는 “다윗의 보석”이라고 불렀습니다. “딤편답”은 “비밀” 또는 “신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6편 속에는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깊은 의미의 신비스러운 비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특징은 고난 중에서 오직 하

나님께 피합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하나님을 잘 아는 성도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께 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숨겨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이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라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화 하나님여! 주는 나의 주시옵니(시16:1)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함께하는 성도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오직 주님께 피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엘”이 나타납니다. 이 이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계셨을 때처럼 지극히 연약해지고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실 때 사용했던 이름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확실하게 구원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를

받는다든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안전하게 보호해주시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시9:10),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십니다(시9:12).

수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시16:1-2)

“나를 보호하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길 잘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요6:37).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안전하게 피할 곳이 없습니다. 아무리 꼭꼭 숨어도 안살탈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그 생명과 건강과 가정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라는 “내가 이미 주 안에서 피할 곳을 얻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믿음은 결코 내게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특징은 오직 주님만이 복의 근원 되심을 믿습니다. 모든 각양 좋은 선물과 복이 다 위로부터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목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시16:2)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도 복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을 수 있는 그 자체가 큰 복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안하다, 걱정된다, 염려스럽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가난해도 아무 것도 없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늘 주시고도

남는 복을 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없어도 넉넉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만의 매력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복은 아무리 나열해 봐도 한계가 있고 불안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무한하고 절대적이고 최상의 복이지 않습니까?(시23:1).

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시16:2)

오직 주님 외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고백을 하는 다윗은 그 마음 깊은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복이 아니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좋은 것과 세상에 복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You are my Lord! apart from you I have no good thing.”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

려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의 그 어떠한 좋은 것도 복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만 가지의 복을 누리며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기쁨이 넘쳐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주안에서의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토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시16:3)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특징은 교회를 가장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는 훌륭한 존귀한 사람이 많이 있어도 다윗은 성도들을 가장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을 더욱 사랑하시며 존귀하게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성도는 교회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모든 즐거움을 교회와 함께 나누며 교회를 가장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피 값으로 사신 교회를 가장 존

귀히 여기고 교회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잘되면 너무 기쁘고 교회가 일이 있으면 같이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요 우리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존귀한 신분임을 아는 성도는 이제 모든 즐거움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지요!

다니엘 영성 프로젝트 (6)



이희갑 목사
(아주사파시빅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세 가지가 없는 교회 교육

다니엘의 일생을 통해 교회교육의 이모저모를 논의하기 위해 시작되었던 이 글이 벌써 여섯 번째가 되지만 아직도 다니엘서 2장에 머무르고 있다. 그만큼 할 이야기가 많고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 우리가 반추해야 할 내용이 너무 많다. 예전에 이야기했지만 성경에 나오는 3000명 이상의 사람들 중에 다니엘만큼 지식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을까?

지금까지 다니엘 1, 2장을 통해 우리는 다니엘이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지만 전혀 주눅 들지 않게 대처했던 그 비결이 무엇이였을까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게 된다. 그것을 필자는 한마디로 자기 정체성이라고 정의했지만 이 또한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다. 다만 그 정체감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누가 그를 정체감이 충만하도록 가르쳤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다시 말하면 당시 다니엘이 15세쯤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교육이 다니엘이 다니엘되도록 만들었음에 틀림없다고 가정한다

3가지 필요한 교육 : ①영성의 삶 적용 ②태도와 관계 교육 ③시대정신 아는 것만큼 실천하는 적용, 따뜻한 영성, 시대정신 알면 목적의식 생겨

다면(바로 이점에서 필자는 교육의 힘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 그런 다니엘 시대의 교육을 지금의 그것과 비교할 때 뭔가 큰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 즉 똑같은 교육의 힘을 왜 우리는 지금 다니엘 그 시대처럼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는 아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 다니엘 시대에는 있었고 오늘 우리가 잊어버렸거나 등한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필자는 다니엘 시대의 교육을 반추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지금 회복되어야 할 세 가지 교회교육의 방향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필자는 오늘 의 책박한 토양 속에서 교회교육에 온 힘을 쏟고 계시는 분들을 진심 존경하며 이 글이 그분들에게 생각해볼 수 있는 불쏘시개가 되기를 희망한다.

첫째, 오늘의 교회교육은 영성의 삶의 적용에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 우리의 교회교육은 머리만 큰 사람을 양육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는 2세 교육이든 성인교육도 마찬가지이다. 평신도를 성경박사로 만드는데 힘쓰고 있다. 요즘 교회 커리큘럼은 어느 신학대학의 그것과 견주어 절대 뒤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과연 영성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인간관계가 사랑으로 가득 차고 있는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의 실천이 중요하다. 그것이 주님이 늘 강조하신 것이었

다. 왜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라고 했는가? 머리만 큰 종교인보다는 손발이 늘 앞서는 사람을 양육해야 한다. 바로 다니엘이 그랬다. 열다섯 살의 중학생이 먼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 이방 신상에 바쳐진 후 왕의 식당으로 보내진 고기를 먹으라고 강요당하자 그가 했던 것이 바로 단 1:8에 나와 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는 아는 것만큼 실천했다. 아는 것은 곧 적용을 의미했다.

필자는 불의 전차(Chariots of fire)라는 영화를 꼭 보시라고 권하고 싶다. 에릭 리들의 이야기이다. 그는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영국 연방대표 육상선수로 참가했는데 그는 당시 그가 100미터 달리기 최종 경기가 주일에 펼쳐지는 것을 보고 과감히 포기해 버린다. 온 세계가 난리가 났지만 그는 확고했다. 당시 고국에서 그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 주일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런 그가 주일 결속에 도저히

뛰는 것은 자기 신앙에 맞지 않을 뿐더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친 자신 역시 위선자가 된다는 사실에 고민했다. 그래서 과감히 포기한다. 그리고 그의 종목이 아닌 400미터에 출전하여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을 한다.

그는 이렇게 간증했다. 처음 200미터는 내 힘으로 뛰었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돌아오는 인기와 성공의 기회를 과감히 접고 그는 중국 선교사로 떠났고 거기서 그는 죽었다. 영성의 적용, 말과 행동의 일치, 그것이 교회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과연 오늘의 교회교육은 영성과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가?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다. 입과 몸의 일치, 아는 것을 실천에 옮기는 용기, 마음과 행동의 단일화, 바로 오늘 교회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기본 자세이다.

둘째, 오늘의 교육은 태도와 관계 교육을 등한시하고 있다. 사람들은 차가운 이성을 가진 사람들을 환호한다. 그러나 영성은 따뜻해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숯불을 머리에 쌓으라고 권면한다(롬12:20). 무슨 말인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이성으로, 논리로, 지식으로 변화시키려고 한다. 아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녹이려는 것이다. 선행을 베풀고, 관계를 확립하고, 사랑의 실천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변화를 이끌어내라는 것이다.

(15면으로 계속)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포드 예비부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릭사필드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선교 편지

파라과이

감사한 일

1)코로나19로 세계가 곤경에 빠져 있고 파라과이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까지 긴 터널을 은혜중에 견디며 감사하고 살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입니다.

2)은혜 중에 6개교회가 비대면 예배로 신앙성숙을 보며, 비대면으로 교리공부를 시키고,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고 때때로 양식과 어린이 용품을 나누어 주며 육의 양식도 채워주고 있을 수 있으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3)기독교 예술 유초중고등학교가 개학을 하여 아침마다 경건회를 가지며 전도의 바람이 일어나고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치며, 전교생이 매주 성경한절씩 암송을 함으로 신앙을 유지하고 성숙해가는 모습을 볼 때 감사를 드립니다.

4)신학대학도 지난 3월 2일 대면 개학예배를 드렸는데, "주님께 쓰임 받는 중"이란 제목으로 주님의 종들의 가치성을 설교하였고 40여명이 같이 개학예배를 드렸습니다. 역시 공부하는 비대면으로도 공부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기독교 예술 유초중고등학교

신년도 교사계약도 30여명을 했는데, 신입생 모집이 겨우 70여명이라 경제적 타격은 엄청 나는데 선교적 사명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주께서 물고기 모으듯이 모아 주시도록. 이곳은 학군제가 아니고 모집제라서 학생모집 경쟁이 도를 넘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필요 없는 준비와 재정이 너무 소모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위생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기는 하나 완벽한 준비에도 코로나는 피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복사기한 대를 기도하는 교회서 구입해주셔서 주일마다 주보를 갈라로 복사해서 받는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고, 주일학교 교재 및 색칠하기 등등 얼마나 편리하게 사용하느니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 넘칩니다.

막내 정다운이와 사위 이경승 전도사가 지난 3월 14일 아리조나 십자가교회에서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들은 원래 파라과이 와서 학교 사역과 MK사역을 도맡아 하기로 했는데, 올해 갑자기 브라질 마나우스 선교사로 사역하시던 어머니가 전국 가시는 바람에 아버지 사역을 당분간 도와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위하여 특별히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기도 제목들 -코로나19로 인해 재택 공부를 잘 인내하여 아름답게 2021년을 마무리하도록 -전도와 심방을 놓치지 않고 이런 위기 때에 교회가 더욱 신앙성숙이 이루어지도록 -막내딸과 사위가 목사 안수와 선교사 파송이 은혜 중에 잘 진행되었는데 이들의 앞날을 위하여 선교지 정착과 앞길을 모르는 저들의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도록



-전도하는데 필요한 좋은 전도지와 전도용품을 만들어 주고 4영리 책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잘 돌파하도록

-책을 구입 못하는 학생들과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대책 마련이 잘 이루어지도록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랑한 파라과이에서 정금태 이복래 선교사드립니다.

amorr1004@hanmail.net

가정선교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29.미국 가정문화의 4가지 타입

LA의 한인 주부 안모씨는 평소 "아들이 커서 목사가 됐으면"하는 바람을 숨기지 않습니다. 안씨는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가족을 이끌고 교회로 향합니다. 또 일상생활에서는 물론 하나뿐인 아들 교육에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워싱턴DC에서 멀지 않은 버지니아의 한 도시에 사는 김모씨는 미국을 꿈의 나라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딸과 아들을 둔 그는 자녀의 명문대학 진학이 자녀양육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교육을 잘 받으면 딸과 아들 또한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같은 미국 하늘 아래 살고 있지만 자녀교육을 필두로 한 각 가정의 문화는 다양한 인종만큼이나 제각각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뤄진 대규모 조사에 따르면 마치 혈액형처럼 자녀양육을 중심으로 한 미국 가정의 문화는 대략 4가지 타입으로 분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지니아 대학이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실시한 '미국 가정문화 조사'는 85만 달러의 조

입니다. 미국 가정의 약 21%가 이런 유형으로 다른 유형의 가정들보다 자녀에게 자유를 많이 주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가정의 자녀들은 평균적으로 만 14세 때 성과 출산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접합니다. 또 15세에는 부모의 간섭을 받지 않고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만 16세에는 R등급 영화도 자유롭게 봅니다.

3. 무관심 가정

네 가지 유형의 가정 가운데 비율이 19%로 가장 낮은 편이지만, 미국 전체 가정 가운데 절대적인 비중으로 따지면 적다고 할 수 없는 유형입니다. 저소득층의 백인 가정은 무관심 가정의 추세를 이룹니다. 이들 가정의 부모들은 자신들의 현실은 물론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비판적입니다. 자녀를 살갑게 대하지도 않는 편이며 스스로를 패자로 간주하는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자녀의 학교 숙제나 성적에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저녁 가족 식사 때도 종종 TV를 보며, 식구들 간에는 얘기가 없는 편입니다.

신앙중심적 아메리칸 드림형 가정이 최고의 가정

사연구비가 투입된 대형 프로젝트로 오늘날 미국 가정의 모습을 문화적 측면에서 조명,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는 각 가정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혹은 어떤 유형의 속성을 두드러지게 갖고 있는지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연구는 자녀를 둔 3000여 미국 가정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4가지 유형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앙중심 가정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등 종교적 신념을 일상생활에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가정은 대략 20%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가정에서 잘잘못과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법보다는 종교적 가르침입니다. 이들은 자녀의 행복이나 직업적 성취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신의 말씀에 맞춰 자녀를 양육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2. 진보파 가정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자녀 양육에서도 가장 중시하는 가정입니다. 종교에 대해 회의적이며 정직 등 일반적인 사회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정치적으로 진보적이며 자녀의 미래와 오늘날 미국 사회에 대해서도 낙관적

4. 아메리칸 드림 가정

미국 가정의 27%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가정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가지 유형의 가정 가운데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출세 중심의 인생관을 자녀에게 불어넣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교, 도덕,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기보다는 개개 가정과 자녀들의 성공이 양육과 교육의 최종 목표입니다. 아메리칸 드림 가정의 약 절반은 라틴계와 흑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들과 부모의 친밀도가 네 가지 유형의 가정 가운데 최고입니다.

2008년 이후 전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경제 위기 가운데, 미국도 수많은 대기업들이 도산되었고, 많은 실업자가 양산되었고, 실업률도 최고조에 이르렀고, 수백만명의 고학력 미취업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제로 중산층이 사라지고 빈부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가정들이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미국 가정문화의 이상형은 신앙중심적 바탕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jaekunlee00@hotmail.com (562)714-0691

다니엘 영성 프로젝트

(14면에서 계속)

이미 태도교육의 중요성은 공립학교 커리큘럼에 녹아져 내리고 있다. 머리만 큰 사람은 스스로에게 유익할지 모르나 공동체의 유익에 절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학자들은 알고 있다. 사회적 정서적 능력의 함양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오늘의 교회 교육에서는 이런 것에 얼마나 중요성을 두고 있는가?

다니엘을 보자. 그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결심하고 이를 환관장에게 간청(영여성경에는 please test us)한다. 열다섯 살의 아이가 그렇게 관계에 대한 감각이 있었다는 것이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후 3년 동안 왕궁 학교에서 교육받고 난 직후 느브갓네살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과 해석을 하지 못한 술사(다니

엘도 그 그룹에 속했으니 그도 죽음을 당할 수밖에)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하는 위급한 순간에 다니엘의 반응을 보자.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단2:15). 죽음 앞에 선 10대 청소년의 반응 치고는 놀랍지 않은가? 그의 마음은 태연했고 태도는 침착했다. 바로 그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머리만 큰 사람으로 양육하지 말고 마음이 안정되고 가슴이 따뜻한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교육의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교회교육에 없는 것! 바로, 시대정신이다. 하나님은 각자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특별한 과업을 주셨다. 모세의 과업, 바울의 과업, 아브라함의 과업, 그리고 이 세대에서 수행해야 할 과업! 21세기 갈등의 시대, 포스트모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수행하라고 예비하신 과업이 무엇일까?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 다니엘은 알았다.

18살 때 그는 꿈을 꾸었다. 그리고 인간 왕조의 부침을 거쳐 곧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한다는 것을 그는 푹푹히 보았다. 그것을 통해 그는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것에 평생을 바쳤다. 그의 후손들에게 주님의 오심을 계속 이야기했다.

주님의 탄생 후 베들레헬을 찾았던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을까? 바로 그들이 다니엘의 후예였다. 시대정신을 알면 삶의 뚜렷한 목적의식이 생긴다.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자각이 생긴다. 그리고 나의 에너지를 집중하게 한다. 그것이 존재의 의미이다. 다니엘을 보면서 필자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은 귀한 자들이 다 되기를 기도한다. 교회가 그들의 품이 되어서 잘 키우고 양육하고 비전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한다.

hlee0414@gmail.com

생강집이 터지는

ZOOM 구약성경일독학교



이애실 대표의 '어? 성경이 읽히네!'를 성경읽기 전문강사로부터 배운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시원하게 읽혀드립니다~

개강 날짜 및 시간

- 2021년 4월 7일 ~ 6월 30일
- 매주수요일 7:30pm-9:30pm

- 강의 방법 : Zoom
• 교재 : 성경책, 구약 워크북, 구약읽기 내비게이션

강사진

- 김덕수 목사 (하늘소망교회 담임, 생터성경사역원 LA 지부장)
- 김소연 사모
- 홍에스터 전도사
- 정인주 전문강사
- 나미선 전문강사
- 김미경 전문강사

문의

문의 : 홍에스터 전도사 (213-330-6995, estherhongstar@gmail.com)



새책소개



저자 김성국 목사(본지 발행인)
코로나 시대 속에 되짚어보는 예배의 본질

“그 많던 예배자는 어디로 갔을까”

본지 발행인이며 퀸즈장로교회 담임 김성국 목사의 신간 “그 많던 예배자는 어디로 갔을까”가 최근 출간됐다. 이 책은 김성국 목사가 지난해 3월부터 7개월간 국민일보에 연재했던 칼럼 ‘예배자를 찾았시는 하나님’을 모아 책으로 엮은 것이다.



“코로나 시대 속에 되짚어보는 예배의 본질”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은 그 제목처럼 지난해 극심했던 팬데믹 속에서 마치 ‘폭탄을 맞은 것 같은 예배의 자리’에 대한 이야기다.

추천의 글은 저자의 스승 김인환 전 총신대 총장, 저자가 속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총회 조문휘 총회장, 저자 목양지인 퀸즈장로교회 출신 김승욱 할렐루야교회 담임목사가 썼다.

책은 “그 많던 예배자는 어디로 갔을까”부터 “보이지 않는가, 들리지 않는가”까지 30개 소제목의 글이 있으며, 각 장 앞 페이지에는 각 장을 이해하거나 설명하는 간단한 글, 혹은 찬송시 등이 출처와 함

께 삼입돼 있다. 총 197페이지. 디자인은 히스핑거에서, 출판은 국민일보에서 했다.

한편 국민일보는 책 출간에 앞서 필자와 전화통화 내용을 게재했다. 다음은 기사전문.

“온라인 예배는 도구일 뿐... 참된 예배드러기에 힘쓰자”
“그 많던 예배자는 어디로 갔을까” 출간한 미국 퀸즈장로교회 김성국 목사

김 목사는 14일 국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최근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코로나19라는 아픔을 거치고 거기서 벗어나게 하셔서 새 마음을 갖게 하

셨다”면서 “이번 사태는 지난날 당연하게 여겼던 예배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교회에 진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다시 볼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였다”고 말했다. 이어 “예배드리는 것조차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어떤 형태의 글이든 시대의 예배에 대해 기록을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칼럼을 썼고 책까지 내게 됐다”고 전했다.

“그 많던 예배자...”는 코로나 19 시대 30개 주제로 예배의 정수(精髓)를 이야기한다. 김인환 전 총신대 총장의 추천사대로 예배자가 어떤 영적, 신체적 생활적 자세와 요건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매우 쉬운 문제로, 감동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

일례로 25-27쪽에 나오는 ‘역설로 가득 찬 예배’는 예배를 하나님을 향한다는 점에서

‘수직’, 함께 드린다는 점에서 ‘수평’의 만남으로 봤다. 또한 목마른 자들이 온다는 측면에서 ‘오라’와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는 측면의 ‘가라’의 만남이다. 이처럼 예배를 용서와

아프셨다는 걸 다시금 절감하게 됐다”면서 “하나님의 그 아픔을 아는 예배는 뜨겁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겪으며 더욱 종말론적 관점을 갖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긴박성을 가져야 함을 깨닫게 됐다”고 전했다. 예배를 평생 고민하고 사모했던 그에게 오프라인 예배와 온라인 예배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 김 목사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다”면서 “하지만 유럽의 시스티나 성당과 루브르 박물관에서 본 위대한 작품의 질은 감동에는 절대 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슷한 원리로 미디어 예배는 진짜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 열망을 준다”면서 “그러므로 온라인 예배는 진짜 예배로 초대하는 좋은 도구...그 이상 될 수 없어

다. 김 목사는 총신대와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미국 고든 콘웰신학교 신학석사와 목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해전대 교수와 교목실장, 해전대 학교회 담임목사로 일하다가 2013년 퀸즈장로교회에 부임했다. 현재 미국 동부개혁신학교 신학교 학장과 미주크리스천신문 사장을 맡고 있다.

▲책은 15달러이며 구입문의는 이메일 NYchpress@gmail.com, 전화 (718)886-4400, 4040로 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더 종말론적 관점 갖고 주님 재림 기다리며 긴박성 가져야함 깨달아
온라인예배는 진짜 예배로 초대하는 좋은 도구...그 이상 될 수 없어

원스토리 ...

(13면에서 계속)

하나님은 죄의 심판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물 심판으로 보이시고 이제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인간이 반복할 죄의 모든 대가는 하나님이 친히 받아내시겠다는 선포를 무지개언약을 통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이며 은혜 언약인 것입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홍수 후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시다(창8:20).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 중 부정한 짐승들이 암수 둘씩이었던데 반해 정결한 짐승들은 암수 일곱씩 방주로 들어간 것은(창7:2) 정결한 짐승들을 통해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정결한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민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도 이 땅에서 거룩한 산제사로 드러져야만 합니다(롬12:1).

덮어주는 은혜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가족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셨습니다(창8:21). 무지개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

라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구별된 삶은 하나님의 은혜 즉, 기름부으심의 성령의 능력이었지 그들 자체의 변화가 아님을 노아 사건으로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인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노아의 해체를 함의 형제들인 셈과 야벳이 덮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 아닌 죄인들을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바로 덮어줌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진노를 방주가 받아내고 조건 없이 구원해주시고 방주를 통해 덮어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함은 그 덮어줌의 은혜를 받고서도 덮어주는 사랑을 보이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악인 것입니다(마18:35/참고. 레19:17,18)

(눅6:32,33)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삶은 세상에 속한 자들의 삶과 달라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덮어줌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함뿐 아닌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것이고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 멸망당하는 모양으로 구약역사서는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곧 사랑의 형상입니다. 그 형상으로 창조되어 다시 그 형상을 회복해가는 이야기. 그 진정한 형상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서서히 드러나는 성경이야기 계속 이어집니다.

개혁의 땀방울...

(7면에서 계속)

부활 신앙 회복

현재 현대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 환경이 예사롭지 않다. 계몽사상, 자유주의 사상과 포스트모던 사상을 포함하여 인간 중심의 사조들이 이 뒤범벅되어 숨이 막힐 지경이다. 주일은 우리 육체가 쉬는 날이다. 그러나 그날은 일요일이 아니라 이 날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 예배 드리는 날이다.

교회는 성도들이 그냥 알아서 주일을 지키도록 할 수 없다. 각 성해야 한다. 먼저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주일을 지나치게 율법주의에 근거해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해왔던 것을 반성하고 회개하여야 한다. 또한 주일이 지닌 신학적이며 성경적인

의미와 가치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온전한 주일성수를 위해 반드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며 바로 '나'를 위해 이뤄진 사실을 믿어야 한다. 부활신앙의 회복이 주일 성수의 첫 걸음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신앙을 가졌었기에, 코로나보다 더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함께 모였다.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생명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주일은 무엇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개인에게 허락하신 영적 자유와 기쁨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영적교제를 누리는 날임을 기억하자.

covenantcho@yahoo.com

평등법(H.R.5 Equality Act)
이름에 속지 마시고 강력저지 해야 합니다.

“포괄적인 동성애 인권법안”이라고 불리는 “평등법(H.R.5 Equality Act)”이 금년 2월 25일 미연방 하원에서 찬성224-반대206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3일, 상원 다수당 대표(Senate Majority Leader) Chuck Schumer는 특별 조항을 사용하여 위원회들을 거치지 않고 이 법안을 곧장 상원으로 상정했습니다. 이미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트랜스젠더/동성애 특혜확장 정책에 사인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평등법이 상원에서 통과되자마자 서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언제 이 악법이 상원에서 통과될지 모릅니다. 긴급히 Action을 취해주세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 1 만 4세 유아원에서부터 아이들은 후천적인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의학적으로 위험하다고 검증된 Puberty Blocking Drugs (사춘기 차단제)는 9세부터 줄 수 있으며, Cross-sex hormones (성호르몬제)는 14세부터, “Sex Change(성전환수술)”은 18세부터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한 보험도 학부모 의견을 묻지 않고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공립학교, 비즈니스, 회사뿐 아니라 교회, 신학교, 기독교 학교와 단체들도 ‘종교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으며, 심지어 LGBTQ 직원을 교회나 신학교 등에서 차별없이 고용해야 하거나 생물학적 남성에게 여자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및 여성들의 스포츠에 참여를 허용해야 하는 것이 합법화됩니다.
4 “평등법”을 준수하지 않는 교회, 학교 그리고 단체들은 연방과 주정부/지방 세금 면제 및 인증을 잃게됩니다. H.R.5 법안은 반 생명, 반 신앙, 반 가족(Anti-Life, Anti-Faith, Anti-Family) 규정을 의무화하는 법안으로 “평등법”이라는 듣기좋은 이름으로 가장한 “역차별”을 조장하는 법안이며, 이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 처절한 “역차별”을 받게하는 법안입니다.

https://p2a.co/BN6BJTc 를 클릭하고 주소와 이메일을 보내시면 지역의 상원의원 사무실로 바로 이 법안에 대한 반대문건이 가게 됩니다. 이것은 미국에 사는 모든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출처: http://tvnext.org/2021/03/oppose-equality-act-2/)

● 평등법안(H.R.5 Equality Act)저지 남가주 운동본부

- 고문: 박희민, 송정명, 김영길, 김인식, 이정근, 한기형
- 대표회장: 한기홍
- 공동회장: 고승희, 김경진, 김한요, 노철수, 민승기, 민종기, 박성규, 신승훈, 이종용, 이호우, 지용덕, 진유철
- 실행위원장: 강순영 - 공동위원장: 샘 신, 이성우
- 총무: 강태광 - 부총무: 김시은
- 실행위원: 김병호, 김대섭, 박세현, 박종술, 박형준, 안신기, 양경선, 정우성

● 주관: 평등법안(H.R.5 Equality Act)저지 남가주 운동본부

- 주최: 청교도 신앙회복 운동본부, 미기총, 미주성서화운동본부, JAMA
● 행사문의: 샘 신 목사 (213)215-6029
이성우 목사 (213)675-6493
강태광 목사 (323)578-7933

평등법 반대이유
특별 세미나
25일 오전 10시
LA 주님의영광교회
26일 오전 10시
OC 은혜안교회